MAY 1 4 1982 EAST ASIAN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LIBRARY,
130 St. George Street
8th FLOOR
TORONTO, CANADA M5S 1A5

Daily **The Korea Times Toronto**

No. 822 1982년 5월13일(목) Thursday, May 13, 1982

한국일보 토론토

토론토발행인 : 김 영 규
편 집 인 : 이 석 현
인 쇄 인 : 박 성 서
광 고 부 장 : 송 광 호

적자에허덕이는 한인회

회비납부자 겨우139명, 적극징수키로

이사회, 미인대회결산, "이상없다"

"적지에 허덕이는 한인회를 살리자"는 것이 지난7일 한인회 이사회(이사장 함병섭)의 주된 의제였다.
박인순한인회장이 제출한 수입·지출명세서에 의하면 4월말 현재 $4,955의 적지기 발생, 금년말까지 얼마 적지기 될지 모른다.
이 적자 구제의 주역은 기구당 1년 20달러의 한인회비. 토론토의 한인기구수를 6천세대(인구 3만명기준 : 기구당 5명)로 추정할때, 11일 현재 회비 납부자 139명은 40/ 1도 못되는 숫자이다.

"1천명의회비납부로 금년 목표만 달성되면 애로없이 모든 사업을 적극 추진할 수 있다"는 박인순 한인회장은 "앞으로 교회나 교민들의 모임을 찾아나서고, 신문지상을 통해 캠페인을 벌이는등 적극적인 방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사회에서 갹출된 찬조금만도 1,880달러였으나 이사들의 찬조금보다는 한인회비의 근본적 징수방법 문제이다.

매해 빠짐없이 회비를 납부했다는 모교민은 "회비징수 방법이 획일화되지 못했다. 해마다 교회 또는 직장으로 찾아온 한인회 간부들에게 전해주었으나 금년에는 한번도 못만났다. 또 회비가 갑자기 20달러로 올랐다는데 한마디쯤 미리 일반에게 전해 주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교민은 "한인회는 일부 자칭 유명인사들의 감투싸움만 하는 단체로 인식되고 있다. 회비를 내는 방법도 모르고, 낼 필요성도 아직은 느끼지 않는다"고 말했다.

본사와 인터뷰한 대부분의 교민들은 한인회의 존재가치도 확실치 않고, 회비내는 방법에 대한 계몽·독려도 부족, 홍보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모 한인회 간부는 "한인회를 공격하더라도 참여해서 비판하라"고 주장. "회장선거 참여는 물론, 일년에 20달러 회비도 안내면서 비판만 일삼는 교민들도 있다"고 불평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교민들은 한인회의 필요성을 인정한다. 그들은 "한인회가 전체교민을 위한 단체였으면 한다"고 주장한다.

한인회 당국자는 "불평불만이 있더라도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회비를 내는 방법이 우선적으로 한인회 발전의 핵심"이라면서 한인회비 납부는 언제든지 「The Korean-Canadian Cultural Asso, 20 Mobile Dr, Toronto, Ont. M4A 1H9」으로 수표를 보내 주시면 된다고 말했다.

회비납부는 추후에 발행하는 영수증으로 세금공제 혜택이 있다.

이날 열린 이사회에서는 지난 4월24일에 개최됐던 제7회 미인대회에 대한 결산보고와 함께 문제점등도 토론됐다.

신영식 총무가 보고한 미인대회 결산서에 의하면 미인대회 개최사상 처음으로 $2,869.49의 수익을 올렸다.

일부교민들이 주장하는 '너무 호화롭고 값비싼 대회였다"는 비난에 대해 박인순 회장은 "토론토의 모든 에트닉 그룹들이 호텔을 이용, 미인대회를 한다. 최초로 시도했으나 성공적인 대회였다"면서 "다음 기회에는 학생 또는 노년층을 위한 할인등도 고려해 보겠다"고 말했다.

또 심사결과를 두고 일부 교민들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 이사들은 "좁은 한인사회에서 심사위원들과 흑막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고 일축하고 캐라반운영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교민들에게 심사기준등을 공고키로 했다.(본보 5월12일자 8면 참조)

특수전문장교 선발
해외유학 병역미필자

한국정부는 해외유학중인 병역미필자를 대상으로 특수전문 장교및 준사관생을 모집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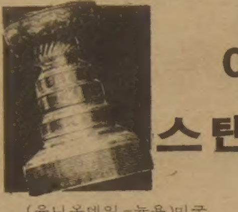
대상은 해외에서 대학원과정을 이수한자로 30세미만의 병역미필자이다.

해당공관을 통해 선발되는 이 요원들은 한국에서 장교 또는 준사관으로 복무케 된다.

희망자는 대학원 성적증명서, 신청서등 제반서류를 구비, 해당 영사관에서 신청하면 된다.

"이번 특수 전문 장교 요원 심사는 영사관에서 직접하게 된다"고 토론토총영사관(전화 : 416-598-4608)의 박종선부영사가 10일 밝혔다.

캐 나 다
외환은행
364-2890
2 FIRST CANADIAN
PLACE SUITE 1140



아일랜더즈 2연승
스탠리컵 우승 목전에

(유니온데일-뉴욕)미국에 본거지를 둔 NHL팀중 사상 최초로 3연패를 달성하려는 뉴욕·아일랜더즈의 노력은 거의 결실의 단계에 이르렀다.

아일랜더즈는 11일밤 2차전에서 저돌적인 팀 뱅쿠버·캐넉스를 6:4로 물리쳐 2연승, 스탠리컵 3연패에 2승만 올리면 된다.

그러나 아일랜더즈의 콘디션은 절대 최상은 아니다. 이날 2차전에서도 수비와 공격의 연결 부족등 헛점이 드러나 오늘밤(목요일) 뱅쿠버에서 가질 어웨이 게임에서 고전이 예상된다.

2차전 게임후 아일랜더즈의 골리 보비스미스는 "아직도 멀었다. 오늘 경기는 실수의 연속이었다"고 말했다.

골리 보비의 말처럼 캐넉스와 아일랜더즈는 3피어리드 초반까지는 한골씩 주고 받으며 치열한 공방전을 펼쳤다. 게임자체는 하키의 묘기보다는 육탄전의 연속이었다.

게임후 "하키의 빌리·마틴"(프로야구팀 오클랜드·A's의 감독으로 액션이 많은 감독)으로 알려진 커넉스의 코취 로저·닐슨은 "우리 선수들이 지나치게 열성이었다. 쓸데없는 파울로 인해 아일랜더즈에게 파우어 플레이 챤스를 지나치게 많이 주었다"고 말했다.

두팀은 13일밤에는 뱅쿠버로 장소를 옮겨 제3차전을 벌인다.(토론토 시각 10 pm: CBC-TV Ch5). 뱅쿠버의 관중들은 새로 고안한 흰수건(백기의 상징)을 흔들며 응원전을 펼친다. 이 백기는 뱅쿠버 코취 닐슨이 시카코와 준결승 2차전에서 심판의 판정에 불만, 하키스틱 위에 땀닦는 타올을 쳐든데서 시작됐다. 닐슨은 이 행위로 퇴장당하고, $1,000의 벌금을 물었었다.

◆뱅쿠버의 터프가이 커트·프레이저가 아일랜더즈의 날쌘돌이 마이크·보시를 짓누르고 있다. 그러나 게임은 아일랜더즈의 6 : 4승리.

프로축구 블리쟈드
對 몬트리얼·매닉
15일 8p.m. CNE
●입장권예매처
한국일보 : 533-2361

오늘의 예금금리 (4월23일 부터)

종 별	기 간	신 용 조 합	일 반 은 행
정기예금	30일	14.5%	13~13.5%
	90일	15.25%	13.75~14.5%
	180일	15.5%	13.75~14.75%
	365일	15.75%	14.75~15.25%

보험이 보장하는 한인신용조합 ☎ : 533-9387~8

은하 보석상
ROLEX
가장믿고 살수있는
「로랙스 지정판매 대리점」
B) 534-7791, 534-9977
620A BLOOR ST. W.

「불편한 관계」타개위한 「캐」·미국 전문가 회합

캐나다와 미국의 관계 왜 점점 불편해지는가 하는 문제를 두고 양국의 실업가, 법률가, 전직관리들이 모여 회합을 가졌다. 지난주에 토론토에서 열린 이 회합은 미국 콜럼비아 경영대학원과 세계적 조직으로 양국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회계및 경영상담회사 투시로스캄파니(Touche Ross & Co)가 공동 주관 30여명의 연사가 나왔다.

미국측의장이며 전 예일대총장이었던 킹맨·브류스터박사는 서두에서 "우리는 이웃이나 서로를 잘 모르고 있다"고, 캐나다측의장 매길대부총장 죤스던씨는 "이제 양국은 서로 한발짝 물러서서 살펴보아야 한다"고 서두를 꺼냈다.

이 토론의 참가자들은 캐나다의 국수주의적 경제정책과 이에 대한 미국의 과민성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

캐나다가 상당한 노력을 쏟고있는 문화, 경제의 자립, 미국에 대한 편견및 미국의 대 캐나다 관계에 있어서 소극적 관심에 대한 캐나다측의 불만에 관해서도 전반적인 토론이 있었다.

「서로 견해차있어도 특별한 관심두어야」

"캐나다는 미국인의 의식속에 점점크게 불안의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고 말하는 알란·고틀립 주미캐나다대사는 "이러한 현상이 올바른 여론으로 주도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토론토대학교의 경제학자 아브라함·로슈타인은 "미국은 캐나다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 우리가 국내적으로 무슨일을 하면 이것을 즉시 미국의 이해를 건드린다"고 말했다.

이번 회담에서 양측이 가장 신경을 곤두세운 문제는 캐나다의 「외국인 투자 평가국」(Foreign Investment Review Agency), 이곳은 캐나다에 아주 큰 혜택을 주는 외국인 투자만 취사 선택하여 외국인투자가들 특히 미국의 원성을 듣고있다.

회의 참석자들은 동 평가국의 목적에대해 일반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으나 비밀주의와, 독단주의적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평가국의 투자평가는 모든 부문에 걸치기 보다는 중요한 몇군데만 집중 실시하기를 원하고 있다.

참석자들은 또 「외국인 투자 평가국」과 외국인 석유회사를 차별하고 석유국유화 정책을 피하는 캐나다의 「국가 에너지 계획」(National Energy Program)은 불확실 하고 투자성향에 찬물을 끼얹어 역사적으로 캐나다 경제에 지극히 중요한 장기 외국인 투자를 위협할 것이라고 예견했다.

전 백악관자문위원 로이드·커틀러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때 자유무역및 투자정책은 현재의 캐나다의 통제정책보다 캐나다를 위해 유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캐나다는 경쟁을 억제하는 통제경제정책 때문에 댓가를 치를 것이며 지금도 치르고 있다"고 일침을 논다. 커틀러는 통제의 댓가로 캐나다의 거의 모든 물가가 미국보다 높은것을 일예로 들었다.

엘리옷·리챠슨, 오빌·프리만과 같은 전 정부각료들을 포함한 많은 미국인들은 캐나다의 강한 지역적 특성과 역사적으로 캐나다연방정부의 과중한 경제간섭과 같은 미국과 근본적으로 다른 몇몇가지 상이점을 배우게 됐다고 했다.

"우리(미국)는 캐나다를 너무 우리와 비슷하다고 생각, 캐나다가 우리와 같고 우리처럼 모든 일을 처리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래서 캐나다가 우리와 달리 중국과 쿠바를 인정하고 독립(경제적)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와 싸우는 것을 볼때 우리는 놀람과 동시에 과잉반응을 보일 수 있다"고 전. 미주기구(OAS) 미국측 대표였던 솔·리노비츠는 말한다.

이같은 양국의 이해와 견해의 상이점에도 불구 양측은 특히 미국은 상대방에게 좀더 많은 관심을 쏟아야 하며 특히 고의가 아니라도 상대방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을 채택하기 전에는 각별한 신경을 써야한다는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전 펜실바니아주지사 윌리암·스크랜톤은 현재 유럽문제담당국속에 포함되어 있는 국무성의 캐나다부를 독립 승격시킬 것을 촉구하고 있다.

스크랜톤은 또 매년 양국정상회담을 개최 현안 문제들을 자주 토론함으로써 "미국이 자주 간과하는 이웃(캐나다)에 대한 미국민과 워싱턴 행정부 관료들의 관심을 집중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미도파 백화점
454 BLOOR ST.W
B 536-1692
R 245-3539

강찬영
변호사
537-3171
~
537-3174
484 BLOOR ST. W.
(Bloor & Bathurs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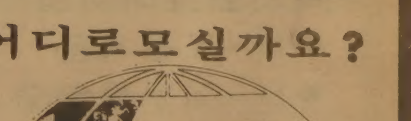
강학수 종합보험

Canada Life 15년근무
상점보험,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R. R. S. P 은퇴연금
B) 868-0922
R) 622-5147

씨름협회
임원공고
82년도 창립총회에서 선출된 씨름협회 집행부임원진은 다음과 같읍니다.
회 장 : 석종윤
부회장 : 김연태
총 무 : 김연수
섭 외 : 윤종옥
경 기 : 최용근

신 발명품 : 코닥디스코카메라
⊙샷타만누르면됩니다
● 특수필림(15장까지)
● 5년이상 보증
● 완전자동화(후레쉬 거리, 촛점필요무)
● 저렴한 가격
대표 : 김 춘 탁
619 BLOOR ST. W.
B) 534-1085
R) 244-9073
킴스 카메라 및 트로피
New shipment, just arrived!

Remarkable KODAK disc 4000 Camera



어디로모실까요?

모국방문특별요금
수속에서 출발, 관광, 도착까지
서울여행사
631A BLOOR ST. W.
B) 535- 6004
R) 293- 9970

MAILPERSON : PLEASE DO NOT DELAY. THIS IS A DAILY.

이철회·장영자부부 사기죄 추가

한 여인의 손에 놀아난 한국기업과 금융계

◇李哲熙씨

◇張玲子씨

(서울12일=연합)한국대검찰청 특별수사반은 11일 중앙정보부차장을 지낸 전 유정회 국회의원 이철희(59)씨와 부인 장영자(38)씨가 천억원 규모의 약속어음을 어음발행자의 허가없이 사채시장에서 환불 유통시킨 혐의로 사기죄를 추가 기소했다.

지난 7일 대검 수사부에 의해 외환관리법위반혐의로 구속된 이들 부부는 81년 2월부터 공영건설·태양금속·삼익주택·해태제과·라이프주택·일신제강등의 대기업에 576억원 사채를 빌려준 후 무려 2,624억원($3억6,440만)의 약속어음을 받고 어음발행자인 기업들의 허가없이 환불, 6개 기업을 뒤흔들리게한 원인을 만든 혐의이다.

공영건설·일신제강은 11일 파산을 선언, 현재 법정관리하에 있고, 해태·라이프주택·태양금속·삼익주택도 심한 자금난에 흔들리고 있다.

검찰의 발표에 따르면 장영자씨는 2번이혼으로 받은 위자료 5억원등 자본 45억원으로 78년도에 사채놀이를 시작, 11일 사임한 장씨 언니의 남편 광업진흥공사장 이규황씨의 이름을 사칭하며 돈을 모아 미화 $40만불을 미국의 교포와 환치기로 불법 도피시키고 또 다른 $40만과 8백만엔을 자택에 은익시킨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었다. 이들은 또 $25만을 추가로 불법도피시키려다 들통이 났다고 검찰이 밝혔다.

장여인은 고위층과의 친분을 미끼로 자금난에 빠지는 대기업의 신용을 얻어 거액의 약속어음을 담보조로 받고 사채놀이를 해왔고, 시중은행에서 350억원의 무담보융자를 얻어썼다.

상업은행장과 조흥은행장이 10일 이 사건에 관련, 사임했다.

검찰은 이규황씨를 비롯한 어떤 공무원도 사실상 이 사건에 관련되지는 않았으며 압수한 이·장부부의 재산 3백억원은 사건으로 타격을 입은 일부 기업에 되돌려질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장씨 부부의 사건은 한국의 기업및 금융계의 허점을 드러낸 좋은 예로 국민은행의 통계에 의하면 28,725개의 한국중소기업이 작년도에 이용한 총 사채는 3,250억원으로 월 3,2~3%의 이자로 기업당 지불한 평균이자액만 1천1백만원이었다.

기업사정악화로 자금이 딸리는 기업들은 아무리 큰 금액이라도 급방 해결해주는 장여인의 「급전놀이」에 놀아났고, 특히 해외건설업체들은 수억달러내지 수십억달러의 해외건설 수주를 하고 있는 만큼 자금난을 겪더라도 정부가 쉽사리 부도처리를 하지 못할 것이라는데 착상한 장여인에 말려든 것이다.

「알」보급선 1척 침몰

협상 성공여부 금주말 판명

유엔의 포틀랜드 분쟁 평화해결을 위한 다각적 협상이 진행되는 가운데 영국해군은 알젠티나 보급선으로 보이는 선박 1척을 11일 침몰시켰다.

영국해군은 포트·하워드' 근해에서 항해신호없이 포클랜드 근해 봉쇄지역의 영국측 방위를 위협하며 접근해오는 1척을 침몰시켰으며 배가 폭발된것으로 보아 화약이나 연료를 운송중이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했다.

영국항공모함 인빈시블에 승선한 런던타임즈 특파원 존·위드로씨의 보도에 따르면 "포격당시 어두워 시야를 가릴 수 없었으나 침몰선의 크기는 1,500내지 2,000톤급이며 폭발에 의한 질은 구름과 안개때문에 생존자여부 확인도 불가능했다고 전했다.

영국군의 공격은 유엔사무총장 자비에·페레즈·드·쿠엘라씨가 알젠티나및 영국대표와 각각 외교접촉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이루어 진것이다. 한 영국의 소식통은 금주말경 외교접촉의 성공여부가 판가름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알젠티나는 11일 알젠티나의 안보에 위협이 되는 사우스·애틀랜틱 지역의 영국 선박및 항공기에 무조건 공격을 가하겠다고 위협, 지금까지의 방어태세에서 공격태세에 돌입할 것임을 시사했다.

한미외교 백주년 기념주간

레이건 선포, 5월16일~22일

(워싱턴 11일=연합) 미국은 한국인옆에 설 것이라고 천명한 레이건대통령은 5월16일~22일을 한·미외교수립 1백주년과 양국민간의 우의를 기념하는 주간으로 제정 공포했다.

레이건은 양국의 외교관계가 2세기째로 접어드는 이 때에 자유와 민주주의 원리가 양국의 계속된 우의를 강화 지속시키는 근간이 됨을 강조하며 같이 지켜나갈 것을 재다짐했다.

레이건은 1882년 5월22일 미국이 한국과 상업및 항해에 관한 강화조약을 체결함으로써 한·미간의 지속된 동맹관계가 이제 역사의 새장을 열었다고 말했다.

레이건은 양국의 관계는 양국 모두 세계역사의 뒤안길에 있을때 시작됐지만 1백년후인 지금 양국은 국제무대의 주역이 됐음을 지적했다.

미국민은 미국이 한국역사의 일익을 담당했음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다고 지적한 레이건은 선교사와 교육가들의 후손들이 한국에서 종교및 육영사업을 위해 헌신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미국은 1945년 일제해방이후 6,25동란등에 군대를 파견, 한국에대해 중요한 역할을 했다.

레이건은 또 많은 한국계 이민자들이 여러분야에서 성실하고 활동적으로 일하고 있다며 미국생활의 풍요와 질을 높이는데 한국계시민들의 기여를 전적으로 환영한다고 말했다.

요즈음 미국민은 한국인들과 여러부문에서 공통된 가치관을 공유하고 있다고 지적한 레이건은 "우리는 오직 자유의 분위기 속에서 인간의 잠재력이 완전히 실현될 수 있음을 믿는다."고 강조했다.

▲ 미세즈 포토제닉.
테네시주 내쉬빌출신의 신디·해리스양이 미세즈·아메리카 미인선발대회에서 미세즈·포토제닉상을 수상한후 5일 라스베가스 힐튼호텔서 몸매를 과시하고있다.

이규황 광업공사 사장 사임

전대통령 처족, 이·장부부사건후

(서울 12일=연합) 이규황 광업진흥공사장이 12일 이철회 전 유정회국회의원과 부인 장영자씨의 외환관리법 위반사건에 관련, 사임됐다.

이규황씨는 장영자씨 여동생의 남편으로 80년5월 광업진흥공사사장에 취임했었다. 이규황씨는 또 전두환대통령의 장인인 이규동씨의 동생이다.

$40만을 재미교포와 환치기로 미국에 도피시키고 또 다른 $40만을 자택에 은익한 혐의로 구속된 장영자여인은 범행기간중 배경에 이규황씨의 힘이 있다는 말을 종종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규황씨는 '육사 2기생으로 61년 퇴역했다.

제5계절

5 계절의 기도

석 광 옥

◆석광옥 스님.

허공 푸른하늘 너머 저 먼 끝까지 나의 기원이 넘쳐 가도록 기도합시다. 푸른 하늘 뭇별이 밀어의 속삭임을 멈추고, 우리 기원에 귀 기울이도록 기원합시다. 바다가 춤을 멈추고, 바람이 흐름을 멈추고, 대지가 운동을 멈출 때까지 기도 합시다.

나를 미워하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나의 조국, 나의 겨레의 영원한 평화 번영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나의 부모, 나의 형제, 나의 이웃, 나의 직장, 나의 고장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온 세계에 평화가 넘치고, 온 중생이 타고난 재능을 마음껏 펼쳐 보람을 누리기를 기도합시다. 온 세계가 청청본연의 진리 질서대로 우리 앞에 열려짐을 감사하며 기도합시다.

우리의 기도는 고난에 싸인자의 울부짖음이 아닙니다. 절대적 권능자에게 자비하신 은총을 기원하는 호소가 아닙니다. 거룩한 님에게 바치는 나의 서원도 아니며, 어두운 눈, 때묻은 옹달 속에서 오뇌와 참회의 읊조림도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는 생명의 노래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진성의 무한한 지혜와 자비의 공덕을 이땅에 오기전에 이미 받은 환희의 노래입니다. 이땅이 어둡고, 눈보라 치고, 스산한 기운 찾아올 때 우리 생명의 체온이 뜨겁게 터져 나오는 목소리 입니다. 아프고, 괴로워하고, 가난하고, 구속받고, 뜻을 이루지 못하고, 짓눌린자를 볼 때 나의 혈관이 소리쳐 흐르는 심장의 고동입니다.

승리와 권위와 부와 안락에 젖어 어둠 속을 헤매는 자를 위한 눈물이며, 햇빛이며, 어버이의 사랑입니다. 평화와 안락과 번영과 자유와 정의를 온 생각, 온 국토, 온갖 생활 위에 구김없이 드러내고자 하는 꺼질 수 없는 생명의 분출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기도는 모두가 이루어집니다. 뜻하는 것은 이루어지고, 행하는 것은 결실하고, 시작도 끝도 뜨거운 생명의 감동이 팽팽히 엉겨 있읍니다.

우리는 진성의 무한 공덕을 나의 생명의 질서대로 쓰는 것이므로 우리의 기원을 막을자 아무도 없읍니다.

기도합시다. 조국을 위하여, 겨레를 위하여, 일체 가난한 이를 위하여, 일체 짓눌린 자와 승리자를 위하여, 세계를 위하여, 인류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우리의 지도자를 위하여, 스승님을 위하여, 부모님과 형제를 위하여, 이미 가신 부모님과 이땅을 지키신 거룩한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허공이 다하고, 중생이 다하고, 중생의 업이 다하고, 중생의 번뇌가 다하여도 우리의 생명의 노래는 그칠날이 없으니 모두여! 이 생명 다 바쳐서 기도합시다.

새 한인주소록 배부

누락 많으면 추가분 발행예정

토론토 한인회(회장 박인순)는 새로 발간한 82년도 토론토지역 한인주소록을 배부하고 있다.

우선 각 교회를 통해 배부중인 새 주소록에는 170여페이지 가나다순의 한인주소와 각 단체 연락처, 136페이지의 한인업소 찾아보기및 광고등이 게재돼 있다.

한인회는 누락되거나 주소·전화번호가 잘못된 부분에 관한것, 혹은 미처 배부받지 못한 한인들은 한인회(전화 755-9288)로 연락해주기를 바라고 있다.

작년에 이어 칠성인쇄소(대표 이인용)가 편집·인쇄를 담당한 새 주소록은 무료로 배부되나 한인회는 회비납부를 권고하는 서한을 주소록에 끼웠다.

한인회는 잘못되거나 누락된 부분이 많을 경우 추가 주소록을 발행할 예정이다.

해외서 연구원모집

한국산업경제기술연구원

한국산업경제기술연구원은 우리나라 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와 국가의 경제발전과제를연구할 간부급 인재를 모집한다.

모집직급은 수석및 책임연구원으로 경제학박사학위 소지자및 취득예정자.

월평균급여는 88~1백30만원이며 아파트와 자동차를 제공한다. 또 귀임여비를 보조하고 자녀교육수당도 지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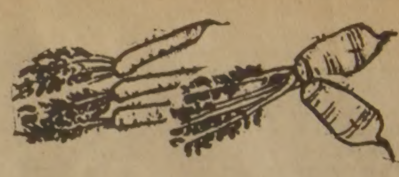
제출서류는 국영문이력서, 신청은 미리하되 동원에서 근무할 수 있는 시기및 희망연구분야에 관한 의견을 보내길 바란다.

동연구원은 정부방침에 따라 국제경제연구원(KIEI)과 한국과학기술정보센터(KORSTIC)의 통합으로 82년 1월8일 새로이 발족된 연구기관이다. 동연구원은 산업, 무역및 기술에 관련된 국내외 각종동향과 정보를 신속히 수집, 조사 연구하고 이를 널리 보급 활용시키기 위해 산업경제, 국제무역, 기업경영및 재무관리 천연자원및 1차산품등 제분야에 대한 연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제출처 한국산업경제기술연구원 원장앞.

P.O.Box 205 Cheong Ryang Ri
Seoul, Korea
965-6211~8

특별대매출



금번 시설을 새로 갖추고, 보다 손님들께 봉사하고자 하오니 일차 왕림해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설동란 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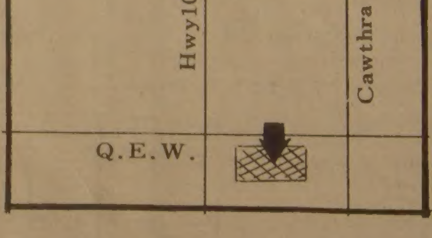
기간 : 5월 15 (토)~

쌀1,000자루(1콘테이너) 및 마른 상품과 생선(1콘테이너)이들어왔읍니다.

● 쌀D·Y가주미		15.95	17.95
● 사보로이찌방		7.99	10.95
● D·Y참기름		7.99	9.95
● D·Y우동국수	5Lb	3.99	4.99
● D·Y막국수	5Lb	3.99	4.99
● D·Y소면	4Lb	2.99	3.79
● 한국고추가루	(김치용)Lb당	2.99	3.99
● D·Y새우젓	Lb당	1.59	2.89
● 햇김	100장	10.95	14.95

● D·Y엿기름	Lb당	1.99	2.79
● D·Y메주가루		1.99	2.89
● 회조개	2Lb bag	7.99	10.95
● 멍개	1Lb bag	3.99	5.95
● 물해삼		4.99	6.99
● 낙지		6.99	9.99
● 생굴		1.99	3.49

※쌀은1자루씩만팝니다. ⊙ 삼양 궁중면·장수면
(볶은고추장, 찹쌀모찌, 찐빵, 냉면등 대량입하)



한 밭 식 품 466 SOUTH SERVICE RD. MISS.
274—5401 625—1078 임수철 설동란

THE KOREA TIMES is the only Daily(Except Sundays) serving the Korean-Canadians Fri. & Sat. issues printed together. Established 1974. Subscription $99./yr, $9./mo. 구독료(선금) 年$99, 月$9, ISSN 0712—1733 2nd Class Mail 5248.

〈소 론〉

과자유와 구속의 독재성

박 찬 도

◆박찬도씨

자유는 자유로움이 자유다.

고로 과자유(방종)도 더한 자유로움이니 당연히자유다.

그런데 과자유는 자유의 반대이며 자유 아님이다.

과자유는 구속과 함께본질성 독재성이다.

과자유에는 상대 과자유의 본질을 수납하는 생리가 있음으로서 구속상태이기도 하다. 한편 현상으로 보더라도 과자유는 상대에게 과소자유(구속)를 강요하는 독재수단(현상)이다.

고로 과자유는 광의( )적 관념으로 자유이되, 사실상 자유아님(자유반대)이다.

우리는 남에게 과자유를 광의적' 자유로조차 인정않는 스스로의 과자유있고, 자신에게 과자유를 사실상 자유아님을 인정않는(과자유를 인정하는)스스로의과자유 있다.

우리는 스스로 과자유를 줄여(공정세심적 표준자유가져)남에게 어느정도의과자유를 광의적 자유로서인정하여 주게되고, 자신에게는 과자유를 사실상 자유아님을 인식코, 인정 안하여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그반대이다. 이같은 반대의 반대마음 되어야 자유 부여함이며, 자유함이다.

우리에게 자유부정의 마음이 있다. 그것은 우리 마음의 독재성(과자유 구속) 때문이다.

재미교포 15만명 시민권자

60만중 4분의1, 대부분 2중국적

(LA지사)미국지역에 거주하는 60여만교포중에서 약15만명이 미시민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귀화교포가 점차로 증가일로에 있어 마이너리티로서의 발언권을 높여 나가고 있다.

1981년 6월말 현재 주미대사관이 대략집계한 미국교포수는 59만1천명이며 그중 LA중심지역에만도 17만6천명정도로 나타났다.

80년 미국인구 센서스에 의하면 캘리포니아주 LA중심의 한국컴뮤니티 인구가 전체미주한인의 약33%를 차지하고 있는것으로 나타나있다.

81년 미주공관장회의자료에 의하면 미국시민권을 취득한 교포는 약15만명으로 전체교포의 약4분의1을 차지하는 것으로외무부에 보고됐다.

또한 미국의 양대정당에서 비공식적으로 추산하고 있는 **한국계미시민권자가 캘리포니아주에서만도 5만명내지 6만명으로 예상하고** 있고 80년이후는 매년 1만명정도가 미국시민권을 취득하는 것으로보고 있어 유권자로서의 발언권이 높아짐에 관심을 지니고 있다.

그런데 이같은 많은 교포 미시민권자들의 대부분이 2중국적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LA총영사관에 의하면 지난 1980년에는 한국국적포기자가 40명, 그리고 올해 들어서는 4월22일 현재까지 고작2명만이 한국국적을 포기해 매년 증가되는 미시민권취득자와는 반비례하고 있다.

교포들의 2중국적현상은 우선 「2중국적이 명백한 위법」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데에도 기인하는 것같다고 관계자는 풀이했다.

한국과 미국은 다같이 2중국적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교포소년 문군 캐나다10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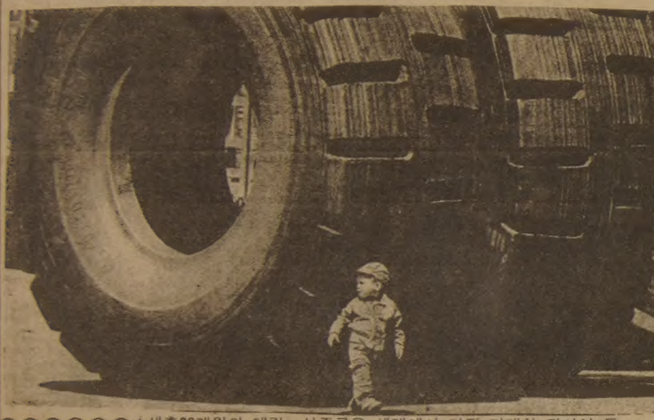
윈저대주최 수학경시대회

오타와 교민 문광순박사(에너지공학박사)의 아들 데이빗군이 윈저대학주최 금년도 전국 수학경시대회에서 전국 10위, 온타리오주 3위에 입상했다.

오타와 베이셔(Bayshore) 국민학교에 다니는 데이빗군은올해10살로 3학년 재학중 5학년으로 월반했고 현재 6학년에 적을 두고있다.

캐나다 전국에서 수학성적이 뛰어난 학생들이 경합하는 전통있는 이 대회에서는 전국에서 3 0명및 각 주 성적이 우수한 학생 1 0명을 선정했다.

문군의 아버지 문광순박사는 연방정부 에너지, 광산 자원성의 연구원으로 근무하고있다



◇◇◇◇◇◇◇◇ 생후22개월의 데릭·심즈군은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타이어 두짝에 완전히 압도된 표정이 역력하다. 그도 그럴것이 거대한 굳이어(Goodyear) 타이어는 높이가 10피트 이상. 데릭군의 키는 3피트가 채 못된다.

한국일보
구독 신청은
TEL : (416)533·2361

교 민 동 정

◆유창균(로즈·가든 중국집 경영)=4개월전 쎄인·클레어·웨스트×번선상의 30년 전통을 가진 중국음식점을 인수, 이를 한인들 입에 맞도록 음식을 준비중에 있다.

집구조도 개조해서 각종 파티를 위해 회의실도 마련했다. 요리사는 중국 일류요리사로, 특히 생선종류에 자신이 있고, 6월에 술 허가가 나오면 교민에게 더욱 봉사할 수 있으리라고.

한국관
연중무휴
오전11시
새벽 1 시
최고의 음식
저렴한 가격
회의실 마련
봉사합니다. 열가로
최고의 음식, 저렴한 가격, 성실성의젖,
단체손님 환영,
결혼피로연등 회의실 60석, 각종회의석 준비,
531 0277
대표 나옥녀
한국관

한국일보
광고 문의처
533-2361

빅·세븐선물센타
각종한약 우황청심환
화장품등
533—7966 김 영 철

〈장편연재〉

영원의 방랑객 ㊴

토론토한인천주교신부 고 마태오

제4장 딴따라 미사의 파동

"그러나 역시 주교님도 세제라는 테두리 안에 계셨어. 나에게 허가를 주시면서 사목국장에게는 말하지 말라는 거야."

"그건 왜요?"

"사목국장이 그것을 알면 말썽을 부릴거라는 거야. 평소에 공의회의 결의 사항을 못 마땅하게 여기며, 특히 요즘 시행중인 예전면의 쇄신을 아주 싫어하는 그이기에 아마 주교님께서도 그의 심정을 고료하고 계시는 것같았소."

"한 교구의 사목- 행정면에 전권을 갖고 계시는 수석보좌주교가 일개 사목국장의 개인적인 반발을 다 염려하신단 말입니까?"

나는 의아한 표정으로 말했다.

"전권을 가진 주교라 하더라도 사람들을 다스리는데 있어서 그 나름대로의 어려움이 많을거요. 물론 주교님이 최종적인 결정권을 갖고 있지만 어디 주교님 한분의 의사로 일이 결정되는 줄 아오? 주교님 주변에는 여러 보좌관들과 참사위원들이 있게 되며, 그들과 항상 상의해서 중요한 일들을 결정하는데, 때로는 주교님의 뜻대로 되지않는 일들도 없지 않아 있을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주교님께서 옳게 판단하신 것은 그분의 뜻대로 관철하실 수는 있지 않겠읍니까?

"주교는 사목자인 동시에 행정가임을 태오신부는 모르고 있는 것같소. 행정가의 심리란 본래 가급적이면 자기 주변에서 말썽거리의 문제들이 없기를 바라는 법이오. 그래서 사목자의 입장에서 부리노를 위한 가정미사를 허락하면서도 행정가의 입장에서는 그로 말마암아 말썽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뜻으로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소."

"이젠 잘 알겠읍니다. 그러한 융통성을 갖고 계시는 주교님께 존경과 순명을 바칩니다. 그런데 가정미사에 대한 그외 다른 지시사항은 없었나요?"

"당신이 들으면 실망할지 모르나, 부리노를 위한 가정미사는 한번 정도로, 아니면 두번 정도로 끝내야 한다고 말씀하셨소. 그리고 우리는 이 사실을 절대 비밀로 해야 한다고 하셨소. 우리는 주교님의 이 말씀을 지켜야 하오."

"잘 알겠읍니다. 본당신부님. 미사를 두번 지내도록 하겠읍니다. 그리고 부리노로 하여금 과감하게 주일날 성당에 나올수 있도록 격려해 보겠읍니다. 문제는 부리노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주일미사에 나오는 소위 열심하다는 신자들 편에 있으니까요…. 그들의 위선적인 태도와 교만이 다소 상처를 받게 된다 하더라도 부리노로 하여금 주일 미사에 나올 수 있도록 마음의 준비를 시켜 보겠읍니다."

"태오 신부, 당신의 마음엔 아직도 부리노를 비난하는 사람들에 대한 불만이나 미움같은 감정을 갖고있는 것같소. 내가 항상 당신에게 주의 주는 바지만 우리는 어느 누구만을 위한 사목자가 되어서는 안되오.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햇빛을 주시고, 옳은 사람에게나 옳지 못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비를 내리시는」(마태5장 45절) 하느님의 너그러우심을 본받아야 합니다. 부리노를 비난하는 그들의 태도가 설사 독선적이고 위선적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그들을 위한 사목자임도 잊어서는 안되오.」

그분은 나를 나무라듯 말했으나, 그분의 얼굴 표정은 자비로웠다.

"본당신부님, 죄송합니다. 하나를 선택하면 그에 반대되는 것을 적극적으로 부정해야만 속이 편안한 못된 성격이 저에게 있읍니다. 그래서 부리노를 비난하는 사람들을 미워하는 감정이 제 마음 안에 있읍니다. 앞으로는 명심하겠읍니다."

"나는 불의와 부정과 타협 안하는 당신의 그러한 적극적인 성격을 좋아해요. 다만 누구든간에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는 것 뿐이오."

"명심하겠읍니다. 그럼 부리노를 위한 가정미사 계획을 세워 신부님께 보고 드리겠읍니다."

다음날 나는 부리노를 방문하고 가정미사에대한 문제를상의했다. 물론 가정미사를 지낼수 있는 허가를 받게된 경유도 자세하게 말해 줬다. 그때 황송해하는 그의 두 눈에서는 감사의 눈물이 줄지어 흘러내렸다. 부리노의 부인 슈잔도 감격해서 울고 있었다. 우리는 다음 주일밤 11시에 가정미사를 봉헌하기로 합의했다.

나는 약속대로 밤 10시30분경이 부리노 가정을 방문하고, 부엌 식탁에 임시 제대를 꾸몄다. 꽃 한송이도 곁들인 그런대로 아담한 제대였다. 그러나 뭔가 주님에게 죄송했다. 나는 제대를 묵묵히 바라보며 주님에게 대화-기도 드렸다.

"주님, 죄송합니다. 아름답고 거룩한 성당이 아닌 이러한 누추한 곳에 주님을 모시게 해서 정말 죄스럽읍니다."

나는 송구스러운 마음 금할 길 없어 이렇게 말씀드렸다.

"아니다, 태오야. 이곳은 네가 생각하는 만큼 누추한 곳이 아니다. 사람이 사는 곳이면 그곳이 어디든 다 아름답고 거룩한 곳이란다." (계속)

제3회 김용순무용발표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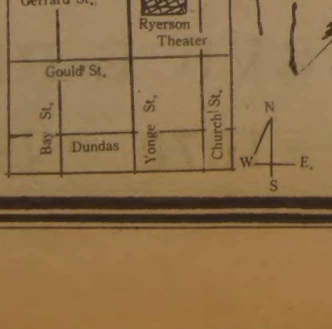
★초호화판 RYERSON극장무대위에
펼쳐지는 5천년 한민족의 얼!!

★2년의 노력끝에 보어드리는
우리자녀들의 자랑스러운 민족의제전!

★남녀노소 우리 온 가족은 물론
이웃의 캐네디안친구들에게도
우리의 문화를 자랑하자!!

●일 시 : 1982년6월12일(토) 오후7시30분
●장소 : Ryerson Theater 43 Gerrard St.E (Yonge & Gerrard)

★입장료 : A석 $8.00 B석 $6.00
★판매처 : ⊙킴스카메라(534—1085)
⊙미도파백화점(536—1692)
⊙노년회(755—8079) (노년회 회원에 한해선 A석을 $6.00에 드림
⊙각 식품점
⊙각 음식점



찬조출연 : 오재윤, 김정숙
출 연 : 김지현, 이민경, 서은정, 송유미, 박쏘냐, 이은미, 김미라, 장진이, 김영임, 김소영, 서혜승, 이 경, 이수경, 정은미, 최후로라, 김영희, 곽아나, 곽수미, 박정화, 손스지, 손진희, 강윤숙, 강진경, 강명진, 김은경, 김은진, 장쥬리아, 매소진
도움주신분 및 단체 :
유영갑 100불 서준경 100불 이기천 100불 김병권 100불
최우덕 100불 곽정열 100불 김춘타 100불 한용식 50불
강우석 100불 정태호 100불 손명수(손·BROS.) 100불
장필규 100불 김만구(ECOSYS 가구점) 100불
김현모(연합상사)100불 이기훈(무나미트로피) 100불
숭공문화협회 200불 배재동창회 200불 라이온스클럽 200불

주최 : 한국민속예술후원회(주소 : 619 Bloor St. W. Tor, Ont. M6G 1K8)
전화 : (416)534-1085

후원 : 토론토총영사관, 토론토한인회, 노년회, 코리아타운번영회, 대한체육회캐나다지부, 대한부인회, 라이온즈클럽, 영리무역, 서울여행사, 배재동창회, '88올림픽후원회

"우리는 이긴다" 거리엔 反英충만

英艦격침으로 國民들 士氣 다시 올라

本社 李梓昇특파원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第1信

街頭엔 愛國誠金·헌혈 행렬
밤거리는 緊張感잊고 흥청

◇포클랜드의 아르헨 對空砲隊 아르헨티나수비대들이 대공포와 소화기로 무장한채, 포클랜드해안의 참호속에서 경계태세를 취하고있다。이 사진은 7일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공개된것인데 촬영일자는 밝혀지지 않았다。【포르토아르헨티노(포클랜드) 7日AP航空=聯合】

【부에노스아이레스8日=李梓昇특파원】『나이 60평생에 아르헨티나 국민들이 이처럼 단결을 보인 것은 처음이다』 아르헨티나의 유력지 나치온紙의 편집부국장 피델·H·에우라스씨의 말처럼 아르헨티나인들은 말비나스(포클랜드)의 失地회복 전쟁에 한덩어리가 되어 있는것 같다。아르헨티나 사람들이 국민성 그대로 파리의 콩코르드광장보다도 폭이 더 넓다고 자랑하는 로비테·구리오광장(서울의 明洞을 방불할 정도로 차량과 인파가 뒤범벅이 되어있는 도심지) 번화가에는『라·말비나스·손·아르헨티나(말비나스는 우리의 것이다)』라는 슬로건이 어느곳에나 붙어있다。

도심지의 고층건물이나 주택가에는 아르헨티나가 지난 4월2일 말비나스를 무력점령한 것을 축하하려 내걸었던 청·백색의 아르헨티나기들이 그동안 빛에 퇴색한 채 걸려있다。아르헨티나공칭 2천8백만명 인구가운데 약3분의1이 몰려있는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는 시구역마다 하루걸러 영국을 규탄하는 궐기대회가 릴레이식으로 열리고 있다。

자존심이 강하고 다혈질인 아르헨티나인에게「4·2말비나스점령」은 제3국인으로서는 쉽게 이해되지않는 영국에 눌려지내는 치욕의역사에 대한 설욕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성보다 국민적 감정이 앞서는 이슈이며 정권적 차원을 넘어가는 문제다。

갈티에리 현정부는 만성적인 좌익게릴라 준동、경제정책의 실패등 국내의실정으로부터 여론의 눈길을 따돌리기위해 말비나스점령을 서둘렀다는 비난이 일부지식층사이에 일고있다고는 하나『실지회복을 환호하는 노도한국민감정앞』에 침묵할 수밖에 없는것이 아르헨티나의 현실인것같다。

『갈티에리 대통령이 당초 그런 계산을 했을지도 모른다。그러나 지금은 그런시비를 가릴 때가 아니다。말비나스는 지난1백49년동안 아르헨티나가 반환을 요구해왔던 땅이다。지난17년동안 역대정부가 반환교섭을 벌여왔으나 영국은 이를 무시해왔다。『말비나스점령은 우리가 잃은 땅을 다시 찾은것이다。영국이 무력으로 점령했던것으로 보면 우리도 무력으로 되찾은 것이 나쁠것없다』고 사업가인 페르난도·이존씨는 아르헨티나의 무력점령을 합리화하고 있다。

아르헨티나의 극렬한 反英감정은 지금 절정을 이루고 있는듯 하다。

시내번화가 길 모퉁이마다 설치되어있는 신문잡지 판매대에는 겉표지에『레디·킬러(살인女)』라는 제목아래 대처영국수상을 드라큘라(흡혈귀)로 그린 주간지나 또는 해적으로 풍자한 주간지들이 불티나게팔리고있다。

◇李梓昇특파원

아베니다·코리엔테스로상의 한신문잡지판매대에서 이주간지에 잠시 시선을멈추자 50세의 땅딸한 여주인이 한손에 대처수상을 드라큘라로 풍자한 주간지를、다른 한손에 아르헨티나기를들고 다가와 자청해서 사진을 찍으라고 포즈를 잡아주었다。

카메라의 앵글을 맞추자 이할머니는 국기를 신들린사람처럼 흔들어 대었다。아들 중 한명은 해병대、한명은 육군사병으로 말비나스전선에 참전하고 있다는 치치타여인은(51)『전체아르헨티나병사들의어머니로서 말한다』고 전제、『영국에서 온는 병사들도 우리들의 아들들과 같다。대처수상은 정치·외교도 모르고 오직 피만 원한다』고 독설을 퍼부었다。

치치타할머니는『말비나스는 아르헨티나가 다시 찾은 것이다』고 말하고『어느 한나라가 승리하는 것을 원치않는다』고 하면서 사태를 평화적으로 해결해서 젊은생명을 구해야 한다고 모정을 앞세웠다。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유일한 영자지인 영국계주민이경영하는 부에노스아이레스헤럴드紙의 주필 제임즈·닐슨씨가 지난4월초에 말비나스점령을 비판하는 논설을 게재했다가 시민들의 위협을받아 피신하는가하면 10일동안 배달원들로부터 배달보이코트를당하기도했다。

그런가하면 일본정부가 영국지지를 선언하자 일본상점의 폭파위협등 反日감정이고조되자 70년의 이민역사를가진 8만여명의 일본계주민들이『말비나스는 우리의 것이다』를 선언하는 군중대회를 가졌다。

이런 뒤에야 反日감정을겨우 누그러뜨릴수 있었다。

4천여명을 헤아리는 한국교포들은 본국정부가 중립을 표방하고 있는데다가 3만5천여달러의 애국성금을 갹출、아르헨티나정부에 기부한 것이 지상에 발표됨으로써 상대적으로 호감을 갖게 되었다。

아르헨티나에 투영되는 영국은 시대착오적인 식민주의의 잔재다。

영국은 아르헨티나의 꿈인『大아르헨티나계획』의 방해자로 부각되고 있다。

『大아르헨티나계획』은 남극의 1백만㎢와 말비나스(포클랜드) 지구의 최남단 비글島를 연결하는 광활한삼각지역을 연결하는계획이다。

칠레와 78년 전쟁일보전까지 갔던 비글島가 독서로 양분된것도 영국의 식민통치의 유산으로 받아 들여지고 있다。

"경찰관 報酬體系 재조정

國會본회의 地自制 합리적方向으로 실시推進"

국회본회의는 8일상오 劉彰順국무총리와 盧泰愚내무장관등 관계국무위원들이 출석한가운데 宜寧경찰관亂射사건에대한 이틀째 對정부질의를 벌였다。

국회는 이날로 對정부질의를 끝내고 10일에는 운영·法司·內務·國防·保社등 5개常委를 열어 宜寧사건에 대한 관계부서의 보고를 듣고 질의를 벌인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趙一濟(국민)·趙正濟·文炳良(이상 民正)·高泳秦의원(民韓)등이 나서서 宜寧사건은 維新體制이래 확대재생산된 물질과 權力만능에 따른 人間性의 상실과 人命輕視의 사회病理현상에서 일어난것이라고 주장、이를 바로잡을수있는 정치의 발전과 사회적분위기의 개선을 촉구했다。

특히 야당의원들은 7일에 이어 이번사건에 引責、內閣총사퇴를 거듭 주장했다。

이에대해 劉彰順국무총리는『지방자치제는 과거의 실시경험으로보아 많은 부작용을 노출했었으나 현재 순차적으로 실시한다는 원칙이서 있기때문에 부작용을 배제하며 합리적으로 실시되는 방향으로 추진할것』이라고 밝혔다。

敬老憲章제정 宣布
老後봉양등 明文化

정부는 제10회 어버이날을 맞아 8일 경로헌장을 제정、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어버이날 기념식전에서 선포식을 가졌다。

경로헌장은 전문2개절과 경로5개 조항으로、노인이 존경받아야 하는 이유등을 설명하고 노인봉양에「先가정 後사회」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정부는 또 이날 기념식전에서 許丁九씨(52·여·강원春川市孝子2洞699의13) 등 전국에서 선발된 효자·효부 2백25명에게 국민훈장、국민포장과 대통령표창、국무총리표창、보사부장관표창과 상금(1백만원~10만원)을 수여하고 이날부터 14일까지 7일간을 경로주간으로 설정、노인을 위한 각종행사를 벌이기로 했다。이번 경로주간에는 경로우대증을 가진 노인들에게는 고궁과 능원이 무료로 개방된다。

英、전쟁水域을 확대
아르헨本土 12海里

【런던7日AP合】영국은 7일 포클랜드 일원에 선포된 전쟁수역을 아르헨티나 본토로부터 12해리까지 확대、이 수역안에서 발견되는 어떠한 아르헨티나군함이나 군용기도 즉각 공격을 받을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와함께 영국은 20대의 수직이착륙 해리어제트전투기와 미사일 요격미사일로 무장한 구축함 4척을 추가로 포클랜드해역에 급파하고 포트스탠리 재공습을 경고하는등 군사행동을 강화하고있다。

군사분석가들과 영국국방성출입기자들은 영국의 이같은 전쟁수역확대및 공·해군력 증강움직임으로 보아 포클랜드群島에 대한 영국특공대의 상륙이 2~3일내로 임박한것 같다고 말했으며 런던의 유력지 더·타임즈紙도 존·우드워드 기동함대사령관이 10일까지 포클랜드에 특공대를 상륙시킬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敬老헌장

노인은 우리를 낳아 기르고 문화를 창조 계승하며 국가와 사회를 수호하고 발전시키는데 공헌하여 온 어른으로서 국민의 존경을 받으며 노후를 안락하게 지내야 할 분들이다。그러나 인구의 고령화와 사회구조및 가치관의 변화는 점차 노후생활을 어렵게 하고 있다。

우리는 고유의 가족제도아래 경로효친과 인보상조의 미풍양속을 가진 국민으로서 이를 발전시켜 노인을 경애하고 봉양하여 노후를 즐길수 있도록 노인복지증진에 정성을 다하여야 한다。

우리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구현하기 위하여 다함께 노력한다。

1、노인은 가정에서 전통의 미덕을 살펴 자손의 극진한 봉양을 받아야 하며 지역사회와 국가는 이를 적극 도와야 한다。

2、노인은 의식주에 있어서 충족되고 안락한 생활을 즐길 수 있어야 한다。

3、노인은 심신의 안전과 건강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

4、노인은 자신의 능력에 따라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5、노인은 취미 오락을 비롯한 문화생활과 노후생활에 필요한 지식을 얻는 기회를 가져야한다。

1982년 5월 8일

리베리아 國家元首
도將軍 오늘낮來韓

西部 아프리카의 리베리아 공화국국가元首인 새뮈얼·K·도國民救濟위원회의장이 全斗煥 대통령의 초청으로 우리나라를 공식 방문키위해 9일낮 來韓한다。〈사진〉

도議長은 13일까지 우리나라에 머물며 청와대로 全대통령을 예방、韓·리베리아 정상회담을 가지며 劉彰順국무총리、盧信永외무장관과 만나 공동관심사에 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도議長은 또 訪韓기간중 한국종합전시장과 水原새마을지도자연수원、陸士、浦項제철、현대조선등을 시찰하며 서울大에서 명예박사학위를 수여받는다。

全店鋪 가격표시제
86년까지 단계實施

정부는 86년 아시안게임과 88년 서울올림픽개최에 대비해서 오는86년까지 시장업태별로 全店鋪에대해 가격표시제를 실시토록하는등 유통산업근대화와 상거래 질서확립을 적극 추진키로했다。

8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상거래질서확립을 최근 범국민적으로 전개하고있는 의식개혁운동의 일환으로 적극 추진해나가기로 하고 이를위해 ▲가격표시제의 확대 ▲소매상의 현대화촉진 ▲유통종사원의 질향상 ▲시장관리주체의 확립 ▲시장기능의 제고및 시설근대화등을 촉진키로했다。

정부는 이같은 방침에 따라 현재 품목중심으로 실시되고있는 가격표시제를 도매시장·백화점·쇼핑센터·大型店등 시장업태별 점포단위로 실시、오는86년까지는 단계적으로 전점포에 대해 가격표시제를 실시토록할 계획이다。

韓英洙의원 發言중 問題부분 職權삭제

丁來赫국회의장은 8일상오 宜寧사건과 관련한 民韓黨 韓英洙의원의 7일 본회의발언중「議題外발언」으로 문제가된 부분을 의장직권으로 삭제했다。

丁의장은 이날 2차본회의 개회벽두「어제 일부의원의 발언중 국가안전보장을 위해 삭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부분을 국회법제111條(會議錄의배부·반포)에의거、회의록에 기재치않기로 했다」고 밝히고「질의의원은 議題와 상관없는 발언을 삼가해주기 바란다」고 주의를喚起했다。

IPI總會 참석 張康在회장 出國

張康在한국일보社회장(사진)과 鄭泰演코리아타임스 부사장은 9일부터 13일까지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제31차 국제신문인협회(IPI)총회에 참석키위해 7일하오 KAL편으로 출국했다。張회장은 歐美지역 해외지사 현황과 現地언론계 상황을 살펴볼 예정이다。

社会漫評

포클랜드 立體圖

地平線

21년전의 아낙네와 지금의 가정주부를 비교한 조사결과(李東娛교수)가 지난 2월초에 나왔었다。옛날엔 아이를 다섯이 이상적이라고 했었는데 지금은 둘、산아제한 반대가 45%였던게 이제는 겨우6%라는것 등등이다。더 재미있는것은 지금의 여성들이 며느리요 아내로서 보다는 사람만이 모든 것을 정담하시켜주는 유일한 끄나불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다。▼이조사에 의하면 결혼상대는 먼저 부모의 뜻에 들어야 당사자가 선을본다고 했던게 21년전이었다 한다。지금은 거꾸로 본인끼리 눈이 맞아 부모가 동의한다는게 32%를 넘고、부모가 고른뒤 본인의 의사를 묻는다는게 37%를넘었다한다。따라서 지금의 주부들은 불가피하다면 이혼도 별수 없다는 생각이 4%나 된다。옛날엔 65%가 절대 반대했다。▼원래가「남녀7세 부동석」이란 손바닥만한 마음에서 평생을 짝끼리 엮어서 살던 시대의 도덕률이다。붐비는 버스속에서 남녀가 살을 맞대고、紛華찬란한 고고클럽에서 남녀가 어울리는 대도시의 시대엔 있기 어려운 도덕률이다。직업적인 제비족과 꽃뱀들이 지난달 20일만해도 8백44명이나 일제단속에 걸렸다고 발표됐었다。▼사랑만으로 맺어졌다 사랑때문에 아무렇지도 않게 헤어지는 젊은 세대를 부럽대고 한탄한수는 없는 일이다。서울시내 71개 결혼상담소에는 매월 짝을찾는 50~60대이상의 홀아비·홀어머니들이 7~8명은 된다고한다。부모나 조부모라는 전통적인 자리만을 지키고 살수없는 지금의 상황을 말해주는 일이다。부평초처럼 외롭게 된 도시인에겐 애정만이 삶의 끄나불이다。▲전통적인 가정의틀이 허물어져가는 것은 좋건 나쁘건 어쩔수없는 일이다。지난날을 무작정 고집하는 것보다는 새로운 상황에 맞도록 생각과 생활양식을 바꾸는게 오히려 바람직 스럽다。그중의 하나가 朝鮮왕조말기의 유물인 호적이다。호주제도가 과연 의미가 있느냐하는 것이 지금 문제되고있지만、결혼한 여성의 호적에도 문제가 있다。▼대법원은 여성이 재혼하는 경우등 호적을 바꿀때 이혼사실을 새호적에 기록하지않도록 지시했다 한다。금치산、한정치산등의사실도 호적까지 끌고가지 않도록하고 고아의 호적을 만들때도 본관을 획일적으로해서 고아임을 밝히는것같은 일을피하도록 했다한다。전통적 가정이 무색해지는 현대에 살면서 무의미한 상처를 줄 필요가 없다는 생각일것이다。

한국일보
우리의理想은健全한新聞

구독신청은 (416) 533·2361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궁중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416) 532-2727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금
교육, 은퇴,
모기지 적금.
부동산

김종조
535-0028
535-7200

SunLife OF CANADA

김신명
• 생명보험
• 연금제도
• 교육보험
• 그룹보험
• 주택·건물
• R·R·S·P.
922-3111 (B)
793-5531 (R)
791-8196 (R)

깜빡 죽여주는 **해장국** 이 드디어 나타났읍니다.

◐개시일 : 4월29일(목)부터
◐가격 : 5불 50

정말 맛있는것 같애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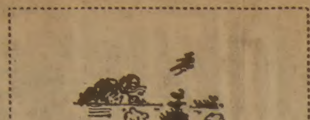
맛으로 해결해 드리는 ―〈순대도 있읍니다〉

한국관 대표:나옥녀
•영업시간• 오전9시~새벽1시
628 BLOOR ST. W. ☎: 536-0290, 531-0277

아침에

미사일을 손에 쥔「아이들」

포클랜드戰…現代人은 얼마나 어리석은가



鄭環喜 〈본사 논설위원〉

축구라면 미쳐버리던 영국이나 독일 사람들도 요즈음 하나, 둘 축구구경을 외면하고있다한다.

2차대전후 한창이었던 48년엔 축구장에 몰려든 구경꾼이 영국에서 4천1백만명이었다. 젖먹이에서 할머니·할아버지에 이르기까지 한번은 축구장을 드나들었다는 셈이다.

그러던게 작년엔 그 절반으로 뚝 떨어져 2천2백만이 됐다. 올해엔 어쩌면 2천만선밑으로 굴러 떨어질것이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다.

덕분에 영국의 축구리그산하 92개팀은 모두 3백28억원이 넘는 빚더미위에 올라앉게됐다. 영국돈으로 2천5백만파운드나 되는 돈이다.

영국의 스털링대학교에서 경제학을 가르치고있는 피터·버드박사는 그원인이 텔레비전때문도 아니고, 더군다나 날씨때문은 아니라고 말하고있다.

생활수준이 올라가면서 축구장만찾던 영국사람들이 요트를 몰고, 자동차로 유람여행을 즐기고, 목수일을 즐기게 됐기때문이라고 그는 숫자를 들어 설명하고있다. 돈 쓸새가 10%오르면 축구구경꾼은 6% 떨어진다는게 그의 계산이다. 소위「레저 혁명」현상이다.

그래도 영국사람들은 지금도 축구에는 미쳐버린다는 극성팬이다.

지난3월 웸블리구장에서 벌어진 리그 결승전때는 응원단끼리 싸움이 붙어 어한명이 도끼에 맞고 두명이 칼에 찔려 중상을 입고, 모두 1백24명이 경찰에 끌려갔다.

오죽하면 때파렌 체육상은 오는6월 스페인에서 열리는 월드컵 본선대회에 『영국응원단을 조심해달란』고 스페인측에 공식요청까지 했는가.

축구팀마다 빚더미위에 앉아있는 서독에서도 최근 응원단끼리 싸움이 붙어 프랑크푸르트시내가 수라장이 됐다고한다.

서독축구선수권 결승전을 구경하던팬들이 싸움을 벌여 1백40여명이 다치고 92명이 경찰에 끌려갔다.

유고에서도 지난3월 주심이 권총을 빼아 달려드는 관중과 맞섰다고한다.

점잖은 신사도 축구장에서는 칼을 던져 짐승을 찌르던 원시인으로 돌아가는 것같다.

「우리」가 아닌 낯선 사람의 목에 칼을 겨누는 잔인한 인간의 본성이 이빨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러니까 축구장의 편싸움은 사회의 통합과 세계평화를 유지하는 안전판과도 같은 것이다.

그런 난장판이 아니었다면 칼과 총을 들고 살육을 일삼았을 인간이기 때문이다.

전쟁도 그러니까 축구장의 난장판처럼 치고 받는 정도로만 될수있다면 사회적 통합은 물론 세계평화를 위해서 약이 될수도 있을것이 틀림없다.

아르헨티나가 영국과의 입씨름을 내동댕이치고 포클랜드섬에 처들어간것도 애초에는 그정도의 생각에서 였을지도 모른다. 못돼도 난장판이요, 잘되면 스포츠쯤으로 생각했을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잘 알려진것처럼 아르헨티나의 군사정부가 포클랜드에 처들어간 것은 1년 동안에 물가가 2배에서 3배까지 뛰고, 경제위기의 그림자가 고개를 들면서 벌어진 일이다.

세계 최고를 기록한 아르헨티나의 인플레는 작년에 131.3% 였다는게 공식숫자다. 그러나 한 권위있는 영문 주간지는 160%를 넘었다고 말하고있다.

집세는 달러로 표시되고, 하루라도밀리면 우리나라의 일수돈처럼 매일 이자를 물어야 된다고 한다. 1백만페소짜리─다시 말해서 1백만원짜리 돈이 찍혀나와 거스름돈 계산이 편해졌다지만, 웬만한 거래에는 돈더미를 헤는데 30분씩은 족히 걸린다는게 보통이라고 한다.

작년12월 비올라 대통령 대신 들어선 갈티에리장군의 경제상 알레만이 이런 인플레를 잡겠다고 나선데서 정치위기가 고개를 들었던것이다.

지난76년 쿠데타이후 이나라를 통치하고있는 45명의 장성들의 지지아래 알레만은 강력한 허리띠 졸라매기정책을 밀고 갔기때문이다.

긴축정책은 3월9일 첫데모를 몰고 온데 이어 30일에는 전국적으로 유혈데모로 확대됐었다. 군사통치를 반대하고 페론의 부활을 요구하는 데모다.

79년11월 포클랜드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자고 합의해놓고 섬에 밀고 올라간것은 전국적 유혈데모뒤인 4월2일 이었다.

전쟁은 세계최고의 인플레도, 페론의 부활도 깡그리 잊게하는 마술사다. 그것이 인구 1천8백명과 약 54만마리의 양만이 살고있는 헐벗은 섬이라고해도 문제가 영토에 관한한 현대국가의 어느 누구도 양보란 있을수 없는 섬이요,「우리」가 아닌자의 목에는 서슴없이 누구나 칼을 겨눌수있는 특권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싸움은 축구장의 난장판이 아니라 한발에 6억5천만원짜리 어뢰로 순양함을 깨버려 2~3백명이죽고, 한방에 3억6천만원짜리 미사일로 1백8억원짜리 구축함을 박살내서 40여명이죽고다치는 비극으로 확대되고있다.

『나는사이드와인더를 아르헨티나 제트기의 꽁무니를향해 쐈지。3~4초뒤 미사일이맞아 폭발하는 쪽발이일어난순간 나는 마음이 아팠다』고 영국의 한조종사는 말하고있다.

인구 1천8백명과 54만마리의 양이 살고있는 섬을위해 세계최초의 미사일전쟁이 벌어지고있는 것이다.

이제 전쟁의 방향은 영국의 움직임으로봐서 짐작하기 어렵지않다.

양쪽 모두 휴전협상에 찬성한다고는 하지만 4천명의 병력을 갖고있는 영국의 기동함대에합류하기위해 3천명의병력이 포클랜드로 추가되고있다.

아르헨티나도 빈손으로 약9천명의병력을 포클랜드로부터 철수시킬 수는 없다고 분명히 하고있다.

애초에 정치적 위신을 걸고 시작된싸움이었으니까 어느 쪽이고「양보」란어려운 일이다.

그동안의 경과를 보자면 영국은 순양함 벨그라노호를 격침해서 아르헨티나해군의 미사일화력을 절반으로 줄이고, 잠수함 4척중 하나를 쨌다. 반대로 영국은 5척의 구축함중 하나를 잃었지만, 본토의 비행장을 떠난 아르헨티나 공군기들의 작전거리 한계선에 머물러 있다.

영국으로서는 그러니까 먼저 35전 아르헨티나에게 팔아먹은 항공모함을쳐버려 기동함대의 안전을 확보하고, 겨울 바람이 더 거세어지기 전에 상륙작전을 감행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1백50여기의 미사일로 화망을 구성하고, 24기의 미사일 요격 미사일과 ECM이라는 전파무기로 미사일방벽을친 포클랜드로 처들어갈 작전인것으로 짐작된다.

어린아이 싸움이 어른 싸움됐다면 지나친 말일까.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는 영국을 지지하고, 같은 스페인말을 쓰는 중남미각국은 아르헨티나 편을들어 소련만 더불게 아니냐는 걱정도 들리고있다.

공식적으로 나토편에든 미국의 입장이 어렵게 됐다고는 하지만, 거꾸로 중남미각국은 결국 미국에 줄이 닿는것도 사실이다. 이 경우 미국은 결정적 파국을 막을수있는 완충지대란는 말도된다.

포클랜드해역으로 달려가고있는 영국의 추가병력 3천은 대처수상이 갈티에리장군 코앞에 내미는 주먹일수도 있고, 포클랜드섬에서 9천명의 아르헨티나군과 싸울 상륙군이 될수도 있을 것이다.

미국쪽의 평가에 의하면 아르헨티나군의 士氣는 적어도 초반에서 상당히 높을 것이라고 한다.

싸움이 길어지면 기동함대 유지비만 한달에 5천만달러가 넘는 영국뿐만아니라, 3백억달러의 빚과 어쩌면 2백%가 넘을 인플레에 시달리는 아르헨티나군사정부에게 심각한 짐이 될것이다.

그러나 어느쪽이고 빈 손으로 물러난다는 것은 스스로 무덤을 파는 것보다 더 어려운게 지금의 형편이다.

축구장의 난장판처럼 전쟁의 열기를 불러일으키긴 쉽지만, 그것을 수습하기란 그만큼 어렵다는 교과서를 우리는 매일아침 보고있는 셈이다.

생물학자 헉슬리는 사람이 사람끼리 전쟁을 하는 유일한 동물이라고 말한적이 있다. 물건을 모아두는 습성때문에 생긴 현상이라는게 그의 설명이다.

그러니까 싸움이란 인간의 가장 원시적인 감정의 발동이다. 미사일을 손에 쥔 현대인의 어리석은 모습을 우리는 지금 보고있다.

포클랜드와 아르헨티나는 과연 어디로 갈것인가?

美,「두개의中國」배제

부시 '武器판매 中共主權침해아니다'

【北京8日AP·AFP=聯】 중공을 방문중인 부시美부통령은 7일 北京에서 중공외상 黃華와 회담을갖고 미국의 對대만무기판매로 야기된 양국간의 불편한 관계를 비롯한 일련의 쌍무문제를 논의했다.

레이건행정부출범이후 중공을 방문한 최고위 미국관리인 부시부통령은 이날 黃華와 2시간에 걸친 회담을 마친후 공보비서를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회담분위기는 솔직하고 우호적이었으며 대만문제가 집중 논의됐다고밝혔다.

또한 부시부통령을 수행하고있는 존·홀드리지 미국무성 아시아太平洋담당차관보는 부시부통령이 黃華에게 미국은 중공과의 모든협정을 준수, 양국간의 관계증진을 추진하고 있으며 臺灣과는 『비공식적인』관계만을 계속 유지하고자한다는 미국의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부시부통령은 또 미국이중국을 중공과 대만으로 나뉘어진「두개의중국」으로 간주하고 있지않으며 대만에대한 미국의 무기판매가 중공에대한 주권침해나 내정간섭은 결코 아니라고 강조했다고 홀드리지 차관보는 전했다.

蘇,戰略核도美육박

核탄두 8천여保有

나토報告書 밝혀

【워싱턴7日AP=聯】 소련은 미국이 지금까지 우위를 확보해온 전략핵무기 분야에서도 미국에 육박하고 있다고 나토보고서가 7일 밝혔다.

이보고서는 소련이현재 미국과 영국이 보유하고 있는 9천여개의 전략핵탄두에 맞먹는 8천여개의 전략핵탄두를 확보하고 있다고말했다.

이보고는 현재 나토가 1천52기의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5백60기의 잠수함발사 미사일, 4백10대의 전략폭격기등 총2천22기의「전략핵운반장치」를 보유하고있으며 소련은 1천3백98기의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9백50기의 잠수함발사미사일, 3백56대의 전략 폭격기등 총2천7백4기의「전략핵운반장치」를갖고 있다고 밝혔다.

英,美에 空中給油機 요청

"아르헨本土폭격"示唆

美정부"신중檢討"

【워싱턴·워싱턴7日UPI=聯】 영국은 포클랜드영유권을 둘러싼 아르헨티나와의 전투에서 영국전투기들의 재급유를 위해 미국에 KC135A전략공중급유기의 제공을 요청했으며 워싱턴당국은 이같은 영국의 요구에 응하는 문제를 신중히 검토중이라고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와 미정부소식통들이 7일 밝혔다.

나토군사전문가들은 영국이 미국에 공중급유기를 제공해달라고 요청한것은 영국이 아르헨티나에 대한 원거리폭격을 강행하기 위한것으로 풀이되며 아르헨티나본토를 폭격할 계획을 수립하고있음을 시사하는것이라고 말했다.

나토소식통들은 또 영국은 미국에 대해 사이드와인더 공대공미사일의 제공을 아울러 요청했다고 밝히고 이러한 공중재급유기와 사이드와인더미사일을 갖추게될 경우 영국범위와 전투능력은 상당히신장될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워싱턴의 미정부소식통들은 이같은 영국의 요구가 사실임을 확인하면서 미국은 이를 신중히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워싱턴8日UPI=聯】 레이건美행정부는 포클랜드군도영유권을 둘러싸고 현재 아르헨티나와 전쟁상태에놓인 영국으로부터 미 장거리공중급유기인 KC135기의 공급 요청을받고 현재 이를 신중히 검토하고있다고 7일 미정부소식통들이 말했다.

소식통들은 미행정부가 그와같은 영국측 요청에대해 아무런 결정을 내린바는 없다고 말하고 만약 미국이이 요청을 받아들일경우 이는미국이 이전쟁에서 對英지원에 보다깊은 개입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영국은 영국본토를 떠나 4천5백마일 떨어진 아센션도로 향하는 영국공군의 벌컨폭격기나 님로드레이다정찰기들에 대한 공중재급유를 위해 이공중급유기를 요청한것인데 이 아센션도는 그동안 포클랜드로 떠나는 영국공군기들의 중간기착지로 이용돼왔다.

美, 撤軍·休戰촉구

전쟁水域 확대우려

【워싱턴7日AP=聯】 레이건美대통령은 7일 아르헨티나 본토 12해리밖에서 발견되는 아르헨티나 군함이나 군용기를 공격하겠다는 영국의 발표에 우려를 표명하고 포클랜드 군도로부터 모든군대의 철수와 휴전을 거듭 촉구했다.

86년 世界平和의해

유엔서 決議案채택

지난4일 유엔 경제·사회이사회는 유엔헌장의 정신에 입각, 모든 인류에게 평화애호심을 깊이 심어줄수있도록 오는86년을「세계평화의해」로 선포할것을 내용으로하는「세계평화의해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 이를 올가을 제37차유엔총회에 건의키로 했다고 유엔주재 한국대사관이 8일외무부에 보고해왔다.

포클랜드 報道자세

英政街에 논란

【런던7日AP=聯】 포클랜드분규를 다루는 영국언론의 최근 보도자세가 영국정가와 언론계에 논란을 불러일으키고있다.

보수당의 한 의원은 7일 BBC·TV의 한 앵커맨이 포클랜드사태를 보도하면서 『반역에 가까운 발언』을했다고 비난했으며 한 우익신문은 좌익계신문 2개지가 실질적 반역행위를했다고 비방하고 나섰다.

加의회 軍縮委평가

"앞으로 3~6년내에 한국, 核보유국 된다"

【터론토7日=聯】 캐나다의회 군축위원회는 오는3~6년안에 핵폭탄을 보유할능력이 있는 14개국가운데 한국을 포함시켰다고 터론토 스타지가 5일 보도했다.

터론토의 최대신문인 스타紙는 한국이 오는3~6년안으로 북괴에대해 자체핵무기를 사용할능력을 보유할것이라고 말했다.

이 신문은 같은 기간에 핵무기보유능력을 가질 국가들로 한국을 비롯, 아르헨티나, 브라질, 체코슬로바키아, 덴마크, 東獨, 네덜란드, 노르웨이, 파키스탄, 폴란드, 스페인등 14개국을 지적했다. 이 신문은 이보다 빨리 1~2년안으로 핵무기를 보유할 국가들이 일본, 대만, 이스라엘등 3개국이라고밝히고 특히 이스라엘은 현재 이미 핵보유국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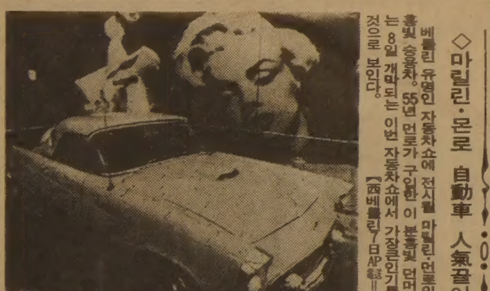
포클랜드에 强震

【홍콩7日AFP=聯】 홍콩의 영국관측소는 7일 포클랜드군도의 부속도서인 사우드 샌드위치섬 근처에서 금년들어 최대의 지진이 발생했다고말했다.

관측소는 리히터진계로 강도 6.9의 강진이 이날하오2시39분(한국시간)에 기록됐으며 진앙은 사우드 샌드위치섬근처라고 밝혔다.

사우드 샌드위치섬은 영국군이 아르헨티나로부터 탈환한 사우드조지아섬으로부터 남동쪽으로 7백52㎞떨어진 곳에 위치하고있다.

◇女首相과 國防相의「屋外대화」 마거리트·대처 英國수상이 7일 각외각료후 런던 다우닝街 10번지 수상관저밖에서 존·노트 국방상과 대화를 나누고있다. 【런던7日AP 特約=聯】



◇마릴린·몬로 自動車 人氣끌어

베를린 유명인 자동차쇼에 전시될 마릴린·먼로의 분홍빛 승용차. 55년 먼로가 구입한 이 분홍빛 썬더버드는 8일 개막되는 이번 자동차쇼에서 가장큰인기를 끌것으로 보인다. 【西베를린7日AP 特約=聯】

記者의 눈

女人의 超能力

현실의 세계가 소설의 세계보다도 더욱 요지경속이다. 소설이나 영화속의 스토리전개는 作家가 상상력을동원해서 그려낸 세계. 현실사회와는 거리가 멀고 그때문에 범인의 생활감각으로는실감이 나지않는다.

그런데 현실사회에서 벌어진 사태가 소설이나 영화속에서 나타난 상상의 세계보다 더욱 흥미롭게 전개되고있다.

금융가의 여왕으로 군림안 張아무개여사의경우─금융가에서 그녀의 영향력은 여느 영화에서 자주본적이있는 소머스부인의 초능력을 방불케 했다.

경찰과 국세청요원으로 구성된 합동수사반이 가택수색에 나섰을때 집안팎에서 벌어진 현상, 호화로운 생활양식, 아직 나타나지않고 있는 어마어마한 재력, 경제계에 미친 파문, 그 뒤처리과정… 여기저기서 들을만큼 들었으만 도무지 기자의 筆力으로써는 적절하게 묘사할 길이 없다.

어디 그뿐인가. 大和에서 발단된 私債쇼크가 세상이다 아는 비밀이 되어버린는데도 사채쇼크에서 발단된 금융질서의 혼선이 경제계를 뒤흔들어 놓았는데도 매스컴의 안테나는 10여일이나 늦게 포착했다던가.

은행창구에는 모모族는 회사와 관련된 거액의 어음이, 소문에따르면 천수백억원의 어음이 밀려들고 있는데도 은행측은 교환에 돌리지도, 그렇다고 부도를 내지않은채 묵묵부답. 또 金融측의 한심한 내막은 또 뭔가. 자기회사의 어음이 시중에 대량 유통되고 있는데 회사경리부에서는 유통되고있는 어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할 수 없어 『722-××84로 확인하시오』라고 대답했단다.

또 한가지 의문이있다. 그토록 거금을만지며 그처럼호사스런생활을 한 당사자들이 얼마만큼세금을냈을까. 地下경제는 자본주의경제사회 공통의 병폐라지만 우리의경우는 해도 너무한 느낌이다. 그리고 한여인이 일으킨 사채쇼크에 휘청하고 흔들린 우리경제의 취약함이여….

【朴炳潤부장대우·경제부】

海外토픽

皇宮앞서 차량燒却

★日過激派, 게릴라所行 간주

日本의 東京·皇宮앞광장과 오오사까(大阪) 히로시마(廣島) 지바(千葉)의 자위대시설부근에서 7일상오 거의같은시각에 화염방사기나 타이머장치에 의한 자동차소각사건이 발생, 경찰이 과격파의 게릴라사건으로 보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번사건으로 부상자는 없었으나 현장에서 천황제반대를요구하는 中核파의 깃발과 전단등이 발견된점으로 미루어경찰은中核파게릴라의계획적 범행으로 단정하고있다. 【東京=聯】

심장이 몸밖에붙어

★中共主婦 女兒출산

중공廣東省에서는 최근 한 농부의 아내가 심장이 몸밖에 붙은 여아를 출산하여 화제가 되고있다.

영자신문 차이나 데일리지는 이 여아의 사진까지 게재했는데 이사진에는 아기의심장이 가슴오른쪽에 붙어있는것이 분명하게 나타났다. 【北京=聯】

레이건에 抗議카드

★美, 노동·敎會·여성단체

미국의 38개 노동·교회·여성단체는 오는 9일의 전통적인 어머니날을 앞두고 레이건 대통령의 경제정책및 예산삭감조처에 항의하기 위해 레이건 대통령에게 항의내용을 담은 어머니날 카드를 보내기로 했다.

이들단체는 레이건 대통령이 사회부문예산중 3백50억~4백억달러를 국방예산으로 돌린 결과 미국의 어머니와 어린이들 그리고 각계각층의 여성들에게 감내할수없는 과중한 부담을 안겨주고 있다고 판단, 어머니날 축하행사를 카네이션꽃과 캔디이상의 중요한 의미를 갖는날로만들기위해「레이건 대통령의 정책 때문에 직접적으로 고통을 느끼고 있는 전국각지의 여성들」을 동원하여 어머니날카드를 통해 레이건 대통령에 항의하기로 했다는 것. 【워싱턴=聯】

구독신청은 (416) 533·2361

메아리

훌륭한 어머니

「낳으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이 노래속의「어머니 마음」은 멜러디와 더불어 구구절절 세상 모든 아들딸들의 가슴을 뚜듯하게 하는 진정을 잘 나타낸다.

그그마음의 생활감은 온누리 어머니들을 대표하여 금년에는 李淑女씨가 한국일보社의 제19회「훌륭한 어머니」로 뽑혀 어제 시상식이 있었다. 李女史는 착실한 아내로서 7남매의 훌륭한 어머니로서 헌신적이었다. 독립운동, 반공투쟁, 경찰관, 그리고 교역자로서 희생적인 봉사를 하였다.

올해 74세인 李女史의 그간의 노고와 오늘의영광에 거듭 뜨거운 박수를 보낸다. 그리고 앞날의 健勝과 행복을 빌었다.

가정의 달·가정주간에 맞은 이번 어버이날은 人類史上 처음인 敬老憲章을 만들었다.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이신「老人」은 우리를 낳아 기르고 문화를 창조 계승하며 나라와 사회를 수호하고 발전시키는데 공헌하여온 어른」이시다. 한데 경제와 보건의 발전으로 사람의 수명이 더 길어져 노인은 그 수가 전보다 훨씬 늘고 또 더욱 高齡化한 반면, 발전이 몰고온 사회구조의 변천, 즉 核家族化와 그에 따른「가치관의 변화」때문에 老後生活은 더 순탄치 않게 되었다.

언젠가 한 作家는「옛날의 금잔디」란 소설에서 이렇게 변한 가치관속에 어려워진 노인들의 양로원살이 실상을 생생하게 그렸다. 50년대후반부터 선진국에서는 고령자 문제가 가장 큰 사회이슈의 하나로 등장하였다. 당시 한국을 돌아본 선진국사람들은「한국의 노인들은 참으로 당당하다」고 감탄해 마지않던 일이 엊그제같이 되새겨진다.

그러나 달라지않은 이 선진국병이 근래는 우리에게도 파도처럼 급속하게 밀려들기 시작했다. 경로헌장은 바로 이 파동의 濁流를 막으려는 우리의 슬기를 나타낸다. 누구든 다 모시는 내부모에대한 고마움과존경을 잃지않으면 인간사상 초유의 우리 경로헌장은 절로 구현에 성공할것이다.

가족문제의 전문가인 마가렛·미드女史는 한 아버지·할머니슬하에서 자라난 아이들 중에는 不良靑少年이 거의 없다는 유명한결론을 동양가정연구끝에 남겼다. 오늘의 壯年夫婦도 훗날 어김없이 노령의 祖父母로 된다. 이 사실이 가장 큰 금언인 것이다.

여사무원 급모

모집인원 : 약간명

자 격 : 캐나다에 5년이상 거주한자로써 영어능통하고 영문타자에 능숙한자. (미시사가거주자 환영)

※희망자는 5월21일전에 (312)271－2757로 시카코시간으로 오후6시부터 8시사이에 콜렉트·콜로 전화주시기 바람. (근무처 : 미시사가지역)

EAST WEST MARKETS EXCHANGE

(운동구사 캐나다지사)

봉 학 농 장

(전화 :1-775－6256)

5월 초순부터 본 농장에서 생산하는 봄배추, 부추, 짠지등을 아래와 같이 계속 배달하오니 교민 여러분의 많은 애용을 바랍니다.

수요일 : 오후7시(700 Ontario St. 셔본×블루어)
오후9시(5 Capri Rd. EAST MALL)

목요일 : 오후6시(55 Emmett앞 제인×웨스톤)
오후7시30분(521 Finch Ave.W. 배터스트×핀치)
오후8시30분(7411 Yonge St. 영×스틸)

금요일 : 오후6시(2441 Finch Ave.W. 핀치×웨스톤)
오후8시(2700 Lawrence Ave.E. 미들랜드×로랜스)
오후9시(45 Green Crest 마캄×로렌스)

太平洋 상공을 안방처럼… 2백47회왕복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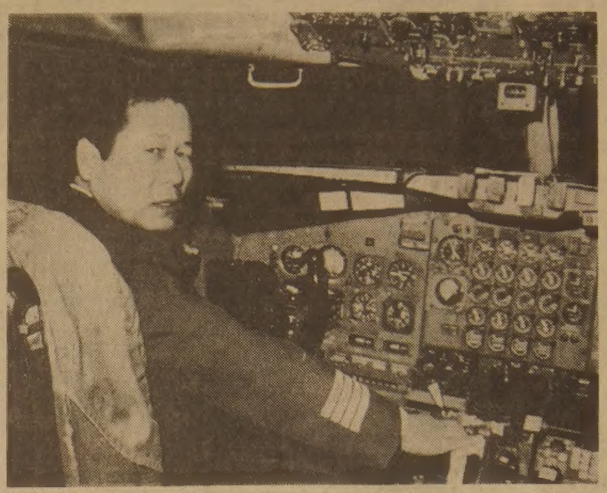
일생에 단한번 가보기힘든 미국을 2백47번 내왕한 사람이 있다. 대한항공 明義昌기장(52). 조종사의 해외나들이야 직업적인 일이지만 그걸 감안하더라도 그의 기록은 놀랍다. 한국인가운데선 단연 으뜸이고 외국인을 다합쳐도 그 예가 없던 기록. 누가 상을준것도 아니고 明기장 자신도 까맣게 몰랐던 일인데 거미줄같이 복잡한 파일러트의 운항일지가 明기장의 대기록을 입증해준 것이다. 明기장에게는 지구의 3분의1이나 되는 太平洋이 차라리 안방처럼 편안하다. 그위를 지나는 1만여㎞의 항로를 손바닥처럼 들여다 보고있다.

訪美 챔피언

—大韓航空 明義昌기장

71년부터 단골…10만명 날라

觀光은 뒷전…철저한 職業人



◇2백47번 미국왕복을한 明義昌기장. 태평양 상공이 오히려 안방처럼 편안하게 느껴진다고 했다.

明기장은 空士2기출신으로 전형적인 파일러트훈련과정을 거친 사람이다. 미국과 첫인연을 맺은 것은 56년 텍사스에 조종훈련을 받기위해 도미하면서 부터.

66년 공군중령으로 제대, 곧바로 민항조종사로 비행기를 타다가 71년 KAL이 태평양노선을 개설하면서 이항로의 단골파일러트가 됐다. 자그마한 체구, 가는 눈매가 타고난 엔지니어임을 단번에 느끼게하는 그의 인상은 웃음띤 개구장이같고 조종간을 잡으면 독수리같다.

그의 조종솜씨는 가히 천부적이다. 대개 조종사는 자신이 타는 기종만타지만 明기장은 프로펠러기인 F27에서 보잉727, 점보, 보잉707, DC10등 KAL이 보유한 모든기종을 마음대로 요리한다. 그는 기술인의 첨단인 운항훈련부장이고 바로 대통령특별기를 몰고 지난해 미국과 東南亞를 다녀온 장본인이다.

그는 기종을 따지지 않고 탈수 있지만 대통령특별기인 날렵한 보잉707이 그의 체구와 딱 맞는다고 말한다.

全대통령이 미국방문을 마치고 돌아오는 기상에서 그에게 『집사람이 비행기 타는데 서투르니 살살 몰아달라』고 농담하며 한잔 권한 포도주를 기껍게 받으며 사양한 일도 있다. 明기장은 태평양노선에관한 세계제1의 파일러트다. 계절따라 변하는 제트기류의 위치도 시시각각변하는 기상변화가 다 明기장의 머리속에 들어가있고 이 노선에서 나타나는 그의육감은 「레이다」를 앞지른다.

미국행 비행기는 태평양상공에서30번의 방향전환을하도록 돼있고 5~10분간격으로 지상관제소와 무선교신을 해야하고 기체의 이상유무및 수십종의 계기를 계속점검해야한다.

그는 이 모든 작업을 예술처럼 「완벽」하게 해낸다.

明기장이 태평양상공에 떠있었던 시간은 6천시간, 이 대양을 건네준 사람수가 10만명이 넘는다. 외국 한국기에 까다롭기로 소문난 로스앤젤레스의 관제사들도 明기장이 탄 콕피트(조종석)에는 깍듯하게 예의를지킨다. 공항의 이민국직원들조차 明기장을보면 꼭 인사를한다.

하나 그는 그많은 미국왕래에도 나이애가라니 그랜드캐년이니하는 관광명소를 구경한적이 없다. 도대체 이럴다할관광지를못가보았다. 그는 비행기가 머무는곳을 떠나지 않는다. 하와이, 앵커리지, 로스앤젤레스, 뉴욕이 그가 드나드는 곳. 다음비행을위해 무리한관광을 못하는 것을 봐도 그는 철저한 직업인이다.

틈틈이 仲媒서는「人間복덕방」

"美國人들의 겸소함 배워야죠"

그저 明기장은 한반도와 미대륙에 흩어진 동포사회를 잇는 훌륭한 메신저이다. 태평양을 넘나들며 중매도 많이 했다. 明기장을 아는 미주교포들이 明기장을 「인생복덕방」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긴항로에서 明기장이 항상 감동을받는 구경거리가 있다. 북태평양상공을 날을때 휘하게트인 조종석앞창으로 지구와 하늘의 틈바귀에서 해가 뜨는 장관이 바로 그것이다. 이장관만은 입으로도 붓으로도 표현하기 힘들단다.

순간 그는 「아옹다옹인간사」가 모두 시들하다는 생각을 하게되고 「허무」를 느낀다고했다.

너무 자주 바뀌는 시차에 피로 하긴하지만 싱그러운 캘리포니아의 오렌지맛 여러 인종이 모여 어울려사는 미국의 모습을 보는 재미도 明기장에겐 직업에서 얻는 중요한 부수입. 30년간 한국이 변해가는 모습을 미국과 비교해온 明기장은 『이제 우리나라도 성장하고 국민도 세련되어 어깨가 으쓱해진다』는것.

그가 주저하면서도 우리나라 사람에게 꼭 귀띔해주고 싶은 충고는 『자원이 풍부한 미국사람들의 겸소함과 이제겨우 가난의 허물을 벗으려는 한국인의 사치를 맞바꾸었으면』하는 소망이다. 【李鎭기자】

孝子·孝婦 2백55명 포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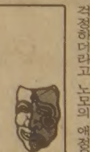
어버이날…가없는 恩惠기려

8일은 제10회 어버이날. 낳아주고 길러준 어버이의 은혜에 감사하는 이날 保社部는 「경로헌장」을 선포하고 전국에서 효자59명, 효부 1백66명등 2백55명을 포상했고 전국의 아들, 딸들은 어버이 가슴에 카네이션을 달아드렸다. 그러나 이것으로 족한것인가. 敬老苑이 노인들에게 무료로 개방된 이날 돌봐주는이 없이 끼리끼리온 할머니 네사람이 다른 사람이 노는것을 부럽게 바라보며 하루해를 쓸쓸히 보내고 있었다.

「큰 자식」

어버이날 孝子賞받은 朴幼年옹

上京날 9旬老母 "아가야 조심하거라"



朴幼年노인(76·사진·제주南濟州郡安德面和順里1732)에게 「효행」이란 상을 받아야할 일이 아니라 삶 그 자체이다.

노인은 여름에도 무릎이 시려서 기동이 불편하지만 이 노구를 이끌고 96세된 노모의 진지수발은 물론 대소변을 받아내기가 8년째이다.

朴노인은 어버이날을 맞아 효자상(국민훈장목련장)을 받기위해서 울을 향해 집을 떠날 때 노모가 『큰 자식아, 네가 왜이리 늙었느냐, 다리에 힘도 없을텐데 길조심하거라』고 걱정하더라고 노모의 애정을 털어놓으면서 활짝 웃는데 바로 어린이의 표정이었다.

朴노인은 어머니앞에서 늙어간다는 것이 孝가 아님은 알지만 세월이야 어쩌할수없다며 껄껄 웃었다.

병상에 누운 노모가 늙은 아들이 떠주는 미음을 받아먹으며 『네가 얼굴이 야위었다. 너도 주름살이 자꾸 늘어가는구나. 무릎이 시리지않느냐』며 아들의 늙음을 가슴아파할 때마다 朴노인은 『제가 어머니보다 오래살아 임종을 지켜 드리겠으니 걱정마시고 오래오래 사십시오』라고 위로해 드린다고 전했다.

노인의 아들 박중원씨(38)가 늙은 아버지를 대신해서 할머니 수발을 하려하면 朴노인은 한사코 아들을 말린다. 『노인은 자식이 모시는것이 천리다. 나 대신 네가 노인을모시면 나도 孝가 아니려니와 노인께서도 섭섭해하실것』이라는것이 朴노인의 주장이다.

朴노인의 집은 南濟州의 푸른바다가 지척에 내려다보이는 언덕위의 초가 3간이다. 집 뒤로는 朴노인의 유채밭 1천여평에 샛노란 유채꽃이 흐드러지게 피어있고 집 앞에는 16년전에 돌아가신 선친의 무덤이 있다. 朴노인은 2년전까지만해도 밭일을 했으나 지금은 농사일은 아들에게 물려주고 오직 노모수발에만 전념하고있다.

『효자상 받으러 서울간다』고 노모께 말씀드리기가 쑥스러워 그냥 「서울구경간다」며 집을 떠났다는데 고향에 돌아가면 노모에게 들려줄 「서울구경얘기거리」를 찾기위해 노인은 여관방 창문을 열고 차와 인파가 홍수를 이룬 서울거리를 살피고있었다. 【金薰기자】

거액 慈善도 "사실상 事業"

新安유물관련 拘束됐다 풀리기도

위자료 2번에 數億…南楊州에 호화別莊 값비싼 庭園樹가득

私債시장의 「代母」 張여인 이야기

사채시장과 건설업계, 금융가에 큰회오리를일으킨 李哲熙, 張玲子씨부부 사건은 이들이 검찰에구속됨으로써 겉으로는 일단 매듭이 지어졌다. 그러나 화제는 꼬리에꼬리를 문다. 특히 정보통인 남편과함께 이처럼 엄청난규모의 「큰손」노릇을 한 張玲子란여자의 행각기와 후유증이 궁금증을 더해주고있는것이다.

張씨는 성장과정에서도 남다른데가 있었다. 全南 康津의 대지주를 할아버지로 둔 그녀는 사업가이자 문필가인 張모씨(70)의 2남3녀중 둘째딸. 44년10월25일생이다. 독실한 가톨릭집안에서 태어나 어려서부터 가톨릭신자였다. 중학교까지는 木浦에서 다녔다.

고등학교는 가톨릭계인 서울 明洞의 K여고를 졸업. 65년에는 S여대교육과를 나왔는데 대학시절부터 여대생으로서는 분수에 넘치는 사교활동을펴 동창생들사이에 유명했다.

대학시절 그녀는 뛰어난미모와 사교술로 메이퀸으로뽑혔다. 또일찍부터 이재에밝고 통이커같은또래들을놀라게하기도했다는것. 화술도 뛰어나 친구도많았으며, 늘 좌중을 리드해 남자들사이에서도 인기를끌었다.

어떻게보면 3번의 결혼과 이혼도 사업자금의 발판을만들기위한 야심적인 수단으로서 이용됐을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첫 결혼상대는 사업가 金모씨. 金씨와 헤어지면서 위자료조로 1억이넘는 洪劍洞의 저택을포함 상당액수를받았다. 두번째 결혼은 철강업을하는 洪모씨였다. 洪씨와는 결혼식을 올리지않고 동거만을 했다는 소문도 있다.

이 洪씨와의 결합도 재벌인 洪씨가 상처한뒤 혼자지내고있다는 소문이나돌자 張씨가 「골동품」을 앞세워 접근했다는 설이 유력하다. 골동품상을통해 5천여만원어치의 골동품을 외상으로 구입,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것으로 싯가 1백억원이된다』고 유혹했다는 뒷소문이다.

張씨는 오래지않아 洪씨와도 다시 헤어지게되었는데 이때 5억원이넘는 돈을 위자료로 챙겼다.

이밖에도 남자관계가 더있는것으로 재계엔 알려지고있다. 한때 新安앞바다 해저보물의 도굴사건과 관련, 장물취득혐의로 구속됐다가 벌금을 물고 풀려나기도했다.

아마도 張씨가 20년가까운 연상의 李哲熙씨와 동거끝에 결혼한것도 그녀의 「책략」이아니었나하고 의심하는 사람까지 있다. 李씨가 거물급출신의 숨은 실력자였기 때문이다. 금융계와 증권가의 代母로 군림하기 위해선 李씨와 같은 배경이 필요했을것이라는것.

李씨가 그녀와 결혼했을때는 57세. 그때까지 호적상의 총각이었다. 주변에서는 그가 원칙주의자이고 과묵하며 지나치게 일에 집착해 「독신」으로 생활해온것으로 알려져있으나, 이번사건으로 글래머 배우, 재일동포여인과 동거까지하는등 다채로운 여성편력이 있었음도 드러났다.

◇귓날·입술까지 張여인 닮았다는 보살 불명이 「普覺行」인 張玲子(왼쪽)씨는 자신이 보관중이던 머리없는 龍頭관음보살상(오른쪽)을 원형으로 복원한뒤 七寶寺에 봉안했다. 미모인 그녀는 자신의 귓날과 입술모양과 똑같게 보살상의 얼굴모양을 만들었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다.

한편 張玲子씨가 사채시장의 「검은 손」이었음이 드러나자 불교계는 큰 충격을 받고있다. 그녀가 오랫동안 신심두터운 거룩한신자로서 불교계와 밀접한 관련을 맺어왔기때문이다.

그녀의 가톨릭에서의 개종과 크고 작은 많은 佛事들은 또다른 화제의 씨를 뿌리고있다. 그녀가 불교계에 혜성처럼 나타난 것은 그리 오래지않다.

79년초 천주교신자였던 그녀는 어느날 집안에 보관하고있던 龍頭관음보살상이 꿈에 나타나는것을보고 갑자기 불교로 개종했다는 얘기. 용두관음보살상은 머리가 없는것인데 張씨는 『국보급으로 어느경로를통해 중국에서 들여왔다』고 주장했다는 것인데 일설에의하면 『골동품으로서의 가치를 볼줄아는 張씨가 엿장사한테 헐값에 산것』이라는것.

그녀의 개종과 용두관음보살상에 얽힌이야기는 안개와같은 내용으로 지금에와서 張씨가 꾸며낸이야기가 아닌가하는 의혹이 불교계에 나돌고있는것.

나중에 이용두관음보살상은 거액을 들여 머리를 따로만들어붙여 七寶寺에 봉안했다.

이절서 봉안식을 가진뒤 그녀는 전조계종 종정 李西翁스님을 만나 「普覺行」이란 불명을 받았고 이때부터 거물급 신도가됐다. 그녀는 李西翁종정을 사석에서도 「아버지」라고 불렀다.

그녀는 李西翁스님이 있는 白羊寺, 전남의 大興寺등 대찰에 불사가 있을때마다 거액을 공양해온것으로 소문나있다. 특히 지난해봄 長城湖·水陸大齋인 방생법회 행사는 1억원의 사비를, 내놓아 버스 1백50대를 대절했고 3만여신도의 도시락을준비했다. 그러나 실제로 불교계 일각에서는 「張보살」의 이같은 크고작은 佛事가 치밀한 사업계산에 근거한 것이었다고 말하고 있다.

예를들면 1억원을들여 신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함으로 신자들은 행사중에 부처님앞에 공양을하게되고 그만큼의 돈이 자연스럽게 張씨에게 회수된다는 것이다.

그녀는 미모에다 돈이 많아 주변에 불교신자들이 많이모였는데 이들에게 돈을내게해 중요사찰에 자신이 七寶寺에 봉안한 용수관음보살상과 똑같은 불상을만들어 바치게했다는것. 그러나 불교계나 외부에서는 이같은일이나 佛事들이 모두 「張보살」이 한것으로만 알려지고있다.

또한가지 七寶寺등 여러사찰에 봉안된 용두관음보살상의 얼굴모습중 귓날과 입술의 윤곽이 그녀를 꼭 닮았다는것. 이때문에 일부 불교신자들사이에선 「張보살」이 『교묘히 佛事를이용해 자신의이미지를 전파하고 信心보다는불교계를사업수단으로이용하려한다』는 말까지 나돌았었다.

큰사찰 하나를 포함, 두절의 주지가 개인비서처럼 그녀의 말을 잘따라 「張보살의 비서주지」라는 별명까지 붙을 정도였다. 그를 주지스님은 『張보살이 죽으라면 죽는시늉까지하며 이상한 소문도있다』는 말도 떠돈다는것이다. 그녀는 주지스님의 임명에도 막후에서 영향력을행사한것으로 알려졌다. 마찬가지로 금융계 간부인사에도 영향력이 큰것처럼 소문나 특별 예우를 받아왔었다고.

그녀는 최근 국제불교도협회라는 단체를 만들어 활동했으며 금년봄 이행사의 하나로 대만을 방문 현지불교단체와 자매결연을 맺기도했다.

李·張씨부부의 재산은 서울 江南區淸潭洞에 3억원상당의 저택과 뒤쪽의 경기도 南楊州郡 3만5천평대지의 초호화 한옥별장, 5~6백만주이상의 주식과 釜山의 수십억원 상당의 대지와 빌딩이 있는것으로 알려져있다.

특히 그녀의 별장은 값비싼정원수로 빽빽히 들어차있고 대지5백평에 34평짜리한옥건물로 되어있다. 그녀는 한달에 한번정도 벤츠승용차를 타고 남편과함께 오곤했다는것. 그녀는 최근 이별장을 慶州불국사처럼 개조하려 했다는 소문도있다.

해를 입은 업체와 사채시장이 빠른시일내에 정상궤도로 되돌아오는일이 지금은 무슨일보다 우선이다.

결혼예물 보석및시계
미도파
다이야몬드, 반지, 목거리, 팔지, 목거리
B536-1692
H245-3539

未決濟어음 3백억원臺

李씨부부 곧起訴

속보=李哲熙·張玲子씨부부의 외화도피및 은닉사건을 수사해온 대검 중앙수사부는 8일 『李씨 부부를 외화관리법 위반죄만 적용, 곧 기소할 방침이며 더이상의 수사 확대는 없을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李씨부부가 어음거래 과정에서 얻은 차익에 대한 이자소득세의 탈세여부를 수사했으나 추적에 어려움이 많은데다 사채업계에 미칠 영향을 고려, 이를 중단했으며 이로써 형사문제는 일단락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李씨부부가 사회적지위를 이용, 시중은행에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거액의 대출을 받아 사채놀이를 해왔는지의 여부나 어음용지가 부당한 방법으로 유출됐는지의 여부등에 대한 조사는 재무부와 은행감독원이 자체적으로 실시, 처리할 방침인 것으로 알고있으며, 이에 대한 검찰의 수사도 없을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지금까지 드러난 미결제 어음액은 3백억원을 넘어 관련회사가 발행한 어음의 지급기한이 금년말까지이기 때문에 그액수는 훨씬 늘어날것이라고 밝히고 이부분역시 재무부와 각거래은행에서 조사중에있다고말했다.

구독신청 배달사고 533·2361

한국일보 533·2361

운전교습
SOUTHERN ONTARIO
DRIVING SCHOOL SPECIAL
10시간의 개인운전교습 집으로나 사무실로 모시러갑니다.
ONLY $129.00
무료신청서, 무료핸드북, 무료필기시험에 필요한것.
한번 와 보십시요. ※조금의 영어가 필요함.
월-금 오전10시-오후5시
2489 BLOOR ST. W. SUT210
(BLOOR & JANE 써브웨이)
766-4441, 766-46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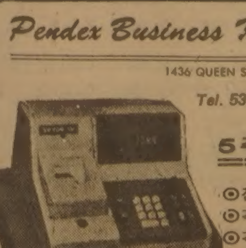
MODERN FURNITURE
ecosys
왜 에코시스 가구가 인기 있을까요?
◆그것은 최고급회사 제품들로서 물건이 특이하고
◆일반 가구점에서 볼수없는 차원높은 가구들이고
◆양심적으로 거래하며
◆사신후에 문제점을 책임지고
◆교포들 에게는 특별염가로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2360 YONGE ST. TOR. (In Yonge-Eglinton Centre)
TEL. 486-0397 김만구

거구장
결혼, 회갑, 생일잔치, 동창회 및 각종 피로연 예약 환영
영업시간 : 월~수 오전11시~새벽1시
목, 금, 토 오전11시~새벽2시
일 : 오후2시~새벽1시
목, 금, 토, 일 권순근과 그일행 출연
5 BETHRIDGE RD. ETOBICOKE
☎: 742-1618

KAWAI 피아노
●KAWAI 피아노는 세계에서 가장큰 회사중의 하나입니다.
●KAWAI 피아노는 일본 정부에서 그 품질을 보증하는 우수한 피아노 입니다.
●KAWAI 피아노는 캐나다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있읍니다.
●HILLCREST MALL ☎: 883-9407
●MARKHAM PLACE ☎: 881-8211
대표 : 윤호섭
세일즈 매니저 : 알렌

진짜 일본음식
스시, 스끼야끼, 뎀부라등등
MASA
JAPANESE RESTAURANT
195 RICHMOND ST. W. (at Simcoe)
TORONTO
977-9519

Pendex Business Machines Ltd.
1436 QUEEN ST. W. (& LANSDOWNE) TORONTO
Tel. 532-0111 Res. 259-5820



5주년 기념 세일
⊙전자 CASH REGISTER
⊙각종 전기전자 계산기
⊙각종타자기
⊙금고, 책상, 케비넷
김 성 수
교포경력(TORONTO 15년 경력)
분납가능

Grant Brown
쎄일즈·매스터
이 한 구
각종 웨곤(WAGON)
CADILLAC, PONTIAC
BUICK, GMC VAN,
J2000.

이한구
1575 WESTON RD. B) 247-7161
WESTON, ONT. R) 977-2731

JAGUAR 종합보험.
*저렴한 염가로 여러분께 봉사함.
*자동차보험.
*비지네스보험.
*집보험.
*생명, 상해보험등.
⊙영어를 할수있는 한국학생 (파타임) 구합니다.
1033 PAPE AVE.
전화 : 425-5656

中共의「革命的 改閣」

政權수립후 최대규모…閣僚體質개선

뉴스診斷

外信部 朴永喆기자

중공은 4일 중공정권수립이래 최대규모의 국무원 개편작업을단행했다.

제5기 전국인민대표대회(全人代) 23차상무위원회에서 승인된 이번 국무원개편의 골자는 13명에 달했던 부수상을 2명으로 축소하고 52개 部, 위원회를 41개로 통폐합했으며 국가고문직을 새로 신설한 것이다. 이번 국무원 개편의 목적은 경제현대화정책의 적극추진을 위한 각료들의 체질개선이다.

중공정부는 이미 연초부터 방만한 행정기구를 대폭 축소, 재조정하고 좌파세력을 권력일선에서 제거하며 경제전문가들로 구성된 행정부를 구성, 현대화작업에 총력을 기울일 뜻을 선언해왔다.

이에따라 소위「新革命」작업을 통해 지난2월 副部長급 7명을 포함, 2백69명을 은퇴시켰고 3월8일에는 본격적인 국무원개편작업에 착수, 12개 部, 위원회를 6개로 통폐합하고 각료 4명을 경질한바있다.

이번에 새로 개편된 내용은 13개部, 위원회가 7개로 통폐합되고 1개위원회가 신설되어 모두 52개部, 위원회가 41개로 정리됐다.

이번 국무원 개편의 특징은 部및 위원회의 통폐합및 23명에 달하는 각료경질이 모두 경제관계 부서에 집중되었다는 점이다. 즉 외교부장 黃華나 국방部長 耿飈, 공안부장 趙蒼璧등은모두유임되었으나 경제업무를 관장해온 중요 위원회및 部는 대부분 통폐합되었다.

또한 전체적인 각료들의 연령도 훨씬 젊어졌다.

새각료의 연령층은 50세부터 71세에 이르고 있으며 대부분 60대로 부장, 부부장들의 평균연령은 종래의 64세에서 58세로 낮아졌다.

또 고위관료들의 학력수준도 대폭 향상되어 홍콩의 明報에 따르면 국무원 각部의 부장, 부부장및 위원회주임들중 대학졸업자의 비율은 37%에서 52%로 증가되었다.

이번 국무원개편으로 달라진 구체적 변화를보면 국가고문직의 신설과 함께 기존 6개 部, 위원회를 통폐합한 국가경제위원회의 확대개편및 국가경제건설위원회의 신설을 들수있다.

먼저 국가고문직이 신설되고 해임된 부수상 9명이 국가고문으로 전보된것은 행정개혁작업의 첫번째 원칙인 고령자 은퇴원칙이 적용된 것이다.

아직까지 국가고문이라는 자리가 과연 어떤 역할을 맡을 것인지가 확실히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일선 행정업무를 관장하기 보다는 이를 그대로 顧問役만을 맡게될 가능성이 큰것으로 관측통들은 보고있다.

즉 수상및 부수상, 각部長및위원회주임들과 함께 국무원회의에 참석, 보고를 듣는 정도에 그칠것으로 예상된다.

또한가지 주목되는것은 9명의 전임부수상외에 새로 국가고문에 임명된 張勁夫(68)의 浮上이다.

張은 국가고문직을 맡은 외에 국가농업위원회, 에너지위원회등 6개부서를 통폐합시킨 국가경제위원회의 주임을맡아 3월의 개편에서 막강한 국가계획위 주임을 맡은 姚依林과萬里등2명의 부수상과함께 實用派정치의 현대화정책추진에 새로운 주역으로 등장하게 됐다.

75년부터 79년까지 재정부장을 지냈고 작년말까지 安徽省위원회 제1서기로 일했던 張은 四川省과 함께 중공농업의 경제개혁 시범연구가 진행되고있는 安徽省에서의 경력을 인정받은것으로 보인다.

부수상 萬里역시 77년부터 80년까지 安徽省위원회 제1서기로 재직하면서 四川省과 함께 가장 가난한 省으로 손꼽혔던 安徽省을 부유한省으로 탈바꿈시킨 공로가있다. 安徽省은 또 부수상 姚依林의 고향이기도해 새로운중공국무원의 진용은「安徽省사단」이 장악하게된 셈이다.

수상은 部나 위원회를 맡지않았던 전례를 깨고 趙紫陽이 직접 국가경제건설위원회 주임을 맡은 것도 눈길을 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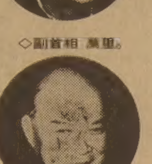
국가경제건설위는 일반실무적인 업무보다는 경제와관련된 각기관및 부처간에서 파생되는 업무의 중복이나 책임분담문제등을 관장할것으로 보인다.

또 하나 특징은 국무원의 새로운진용의 대부분이 문화혁명기간중 走資派로 몰려 숙청되었다가 부활한 인물들이라는 것.

◇首相겸 국가경제건설위원회 주임 趙紫陽。

◇국가고문겸 국가경제위원회주임 張勁夫。

◇副首相 萬里。



◇副首相겸 국가계획위원회주임 姚依林。

經濟도약노려 젊은專門家 발탁

대부분 走資派…實用路線 굳혀

실용파의 代父인 鄧小平을 비롯, 수상 趙紫陽은 물론 萬里 姚依林등 부수상및 張勁夫등 중요각료들의 대다수가 대거「부르좌反動」이라고 낙인찍혔던 인물들이다.

이같은「走資派」인물들의 기용은 이제 鄧小平이 주도하는 중공의 실용파정권이 실용주의노선을 추구하기위한 적극적인 기반을 닦았음을 의미한다.

실용파의 가장 큰 반대세력인 文革派와의 투쟁은 사실상 끝났으며 새로운 도약을 위한 기반이 이번 국무원 개편으로 굳게 다져진 것이다.

방만한 行政기구도 대폭 축소조정

內部저항없어 異彩…權力鬪爭 단계는 지나

「人民 빵問題」해결못하면 붕괴危險

이번 개편과정에서 중공관측자들에게 경이적인 사실로 받아들여진 것은 이같은 대규모 체재개편작업이 큰 저항없이 받아들여졌다는 것이다.

과거 문화혁명 초기에 보여진 것처럼 대규모 숙청과 같은 양상을 드러내보이지않고 유연하게개편작업이 이루어진것은 鄧小平의 완벽한 체제를 갖췄으며 人民日報가 주장했듯이 이번 개편이『단순한 정치적 숙청작업이 아닌 현대화 정책추진을 위한 기구와 체제전반을 대상으로한 하나의 혁명』이라고 중공사회에 받아들여진 때문일것이다.

이번 국무원 개편조치는 대규모 행정개혁작업의 제1단계에 불과하다. 이미 중공정부는 올해에는 국무원을 대상으로 체질개선을 마치고 차차 지방정부에까지 행정개혁을 확산시키겠다고 선언한바있다.

즉 각료급개편에 이어 60만에 달하는 黨중앙 공무원들을 40만 정도로 줄여 黨중앙기구를 재정비한후 내년부터 지방정부에 대한 개편을 단행, 각省,市, 자치구에서 2백만명가량의 고령자, 무능력자, 좌파인사, 부정부패자들을 축출한다는 계획이다.

이미 중공정부는 지방조직에대한 개혁작업을 꾸준히 계속, 고령자, 무능력자, 부정부패자및 좌경분자들은 행정일선에서 상당히 축출했다.

한편 국무원의 대대적인 개편작업이 全人大상무위원회에 헌법개정초안이 정식제출된것과 때를같이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중공정권수립이래 4번째 개헌안인 이번 헌법개정안은 실용주의정책의 선구자였던 劉少奇의 실각과 함께 폐지된 국가주석제의 부활을 비롯,문화혁명을 전후해서 개정된 현재의 헌법에 남아있는 소위「좌경적 요소」들을 삭제하여 實用派노선을 법적기반을 마련해주는 조항들이 삽입되어있다.

이는 명백히 鄧小平이 추진하고있는 실용주의노선의 길을 적극지원하고 있는것이다.

금년말 개최예정인 제5기全人大전체회의에서 개정헌법이 통과된다면 鄧小平은 이번 국무원개편 작업의 성공과 함께 또하나의 정치적 승리를 쟁취하는 동시에 미결사항으로 남아 있는 당과 군부의 개혁작업을 강력히 추진하게 될것이다.

그러나 새로 구성된 실용주의 내각이 시행해나갈 현대화정책이 얼마나 성과를 거둘수 있을까하는 것은 아직도 미지수다.

각료들이 상당히 젊어지고 전문엘리트化가 되었다고는 하지만 하부조직으로 내려가면갈수록 상황은 어렵기만 하다.

수상 趙紫陽이나 姚依林, 萬里, 張勁夫가 四川省과 安徽省등에서 경제개혁작업에 상당한성과를 거둔바 있는「經濟通」이라고는 하지만 10억인구의 거대한 대륙의 빵문제를 해결하는 일은 간단한 일이 아니다.

全人大상무위에서 4일 국무원 개편과함께 승인된 금년도 중공 예산안을 보면 16억6천만달러가량의 적자를 예상하고있다.

이는 81년의 15억달러 보다도 적자폭이 오히려 늘어난액수다.

앞으로 더욱 박차가 가해질 중공의 현대화정책이 구체적인 성과, 즉「인민의 빵문제」를 눈에 띄게 향상시키지 못한다면 鄧小平의 실용주의 정권이 또 한차례 문화혁명을 겪게될 가능성은 언제나 열려있다.

中共 국무원 새 閣僚명단

▲국무원총리＝趙紫陽
▲국무원부총리＝万里 姚依林
▲국무원고문＝余秋里 耿飈 方毅 谷牧 康世恩 陳慕華 薄一波 黃華 張勁夫 姬鵬飛
▲비서장＝杜星垣
▲외교부장＝黃華
▲국방부장＝耿飈
▲국가계획위원회주임＝姚依林
▲국가경제위원회주임＝張勁夫
▲국가경제건설위원회주임＝趙紫陽
▲국가과학기술위원회주임＝方毅
▲국가민족사무위원회주임＝楊靜仁
▲공안부장＝趙蒼璧
▲민정부장＝쿠이·나이푸
▲사법부장＝劉復之
▲재정부장＝王炳乾
▲중국인민은행장＝呂培儉
▲상업부장＝劉毅
▲대외경제연락·무역부장＝陳慕華(女)
▲농업·축산·어업부장＝林乎加
▲임업부장＝楊鍾
▲수리발전부장＝錢正英(女)
▲도시농촌·환경보호부장＝李錫銘
▲지질광물부장＝孫大光
▲치금공업부장＝李東冶
▲기계공업부장＝周子健
▲원자력부장＝章蘊(女)
▲항공부장＝莫文祥
▲전자부장＝張挺
▲정비부장＝于一
▲우주부장＝張鈞
▲석탄공업부장＝高揚文
▲석유부장＝唐克
▲화학공업부장＝秦仲達
▲철도부장＝陳璞如
▲경공업부장＝楊波
▲교통부장＝李淸
▲우전부장＝文敏生
▲노동인사부장＝趙守一
▲문화부장＝朱穆之
▲라디오·TV부장＝吳冷西
▲교육부장＝何東昌
▲위생부장＝崔月犁
▲국가체육운동위원회주임＝李夢華
▲국가계획출산위원회주임＝錢信忠
▲방직공업부장＝郝建秀(女)

나의 이력서

金蘇東 (題字 金蘇東) ㊵

『집없는 天使』

성장한 고아들이 어린 고아들을 선도하는 내용의영화「집없는천사」는 당시의 인기배우 金信哉(최인규감독의 부인)、金一海,강홍식,문예봉등이 출연한 수작이다. 향린원에서 성장한 이들은 이유없는 반항과 자학과 악의 꽃으로 물들어 쳤다. 이 나이어린 고아들을 희망과 밝은 내일의 길로 이끌어간다는 눈물겨운 감동의얘기가 담긴 영화다.

특기할 점은 일본 東寶영화사가 프린트 21편을 복사해서 일본전국에 배급상영한 사실이다. 이 감명깊은 얘기는 일본영화계를 놀라게했고 일본사회를 정화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우리영화가 일본을 석권한 이러한 이벤트는 처음이자 마지막인 한 특례이기도 하다. 사회악의 구렁텅이로 휘말려들어가는 10대의 소년들을 인간적으로 구원해서 밝고 명랑한「소년의 거리」(미국영화·스펜서·트레이시 주연)를 건설한다는 그런 내용이다. 당시 일본사회에서 호평을 받았고, 또 한국영화가 한반도의 울타리밖으로 넘어갈수있는 디딤돌이된 영화다.

최인규감독은 과학하는 영화인이다.

孤兒주제로한 우리映畵 눈물겨운感動 화면가득

나와는 해방후 매우 빈번한 접촉과 대화로 우리영화의 요람기를 의의있게 의논한 감독이다. 그의 이론과 기술을 체득하려는 노력과 그것을 작품에 응용하려는 자세는 늘 한국영화의 과학적인면을 개척했다. 당시 남의 영화의 감상만을 즐기던 나는 최감독의「집없는 천사」에서 감동과 충격을 남다르게 받은 한사람이다. 또 1941년도의 영화「半島의 봄」을 빼놓을수 없다. 동경유학시절부터 나와 가깝게지낸 이병일감독의 데뷔작이다. 현대감각을 충분히 살린 그의 작품이 나에게는「집없는 천사」에 이어서 두번째로 충격을 주었다. 함흥에 있는 명보극장의 주인 李基世(6·25때월남·작고)의 협조로 설립된 명보영화사의 작품이다.

金聖珉(작가, 감독·작고)이 일본「週刊朝日」지의 당선작을 각색해서 영화화했다. 한국영화가 구태의연한 틀에서 탈피한 느낌을 줘서 찬사를 받았다. 이제야 겨우 우리 영화가 영화다운 현대의 모습을 찾은것이다. 구질구질한 낡은 영상으로부터 새로운 시대의 감촉으로 껍질을 벗은 셈이다. 그 신선하고 모던한 우리영화의 혁신적인 전환은 매우 큰 호감을 샀다. 金素英(고 趙澤元의 부인)、金一海、고徐月影등이 출연했고 납북된 양세웅이 촬영한「반도의 봄」은 가난한 한국의 영화예술가를 테마로한 내용이다.

다마가와(多摩川)日活촬영소에서 조감독수련을 쌓은 그가 일본식으로 현대물을 다룬 이 데뷔작은 확실히 한국현대영화의 타입을 바꿔놓았다. 산뜻한 영상처리는 마치 스타일리스트로 이름난 그의 단정한 몸매와 의복같다.

그러나 영화예술이란 이러한 조형이나 외모만으로성취되는것은 결코 아니다.「반도의 봄」은 오랫동안 답습해온 한국영화의 영상미를 현대적감각으로 개혁했다는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억눌린 생활환경속에서「집없는 천사」와「반도의 봄」이 나왔다는 것은 당시 우리영화의 커다란 수확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무렵 영화제작은 심하게 통제되었고 산업과 경제는 말이 아닐정도로 마비되었다. 양곡은 배급제도가 실시되었고 방공훈련이 매일 시민을 괴롭히던 때라 징병제도의 강화는 날이 갈수록 가정의 평화를 파괴했고, 경제경찰은 무고한 시민들과 상인들의 일상생활을 공포의 도가니속으로 몰아넣었다. 무수한 사람들이 투옥되었고 엄청난 재산몰수가 다반사같이 강행되었다. 뿐만아니라 예술인들도 징용했다. 일본군국을 위해서 예술도 징용당한 것이다.

◇1941년에 제작된 영화「집없는 天使」의 한장면。고아들의 밝은 내일을 그린 이영화는 日本전역에서 상영돼 호평을 받았다。

日本 구석까지 상영 大히트 기록

때맞춰 藝術人징용실시 선전이용

영화인들이 그들의 어용선전영화에 출연했다해서 해방후 한때 비난을 받기도 했으나 사실은 스스로협조를 한 것이 아니고 일본제국의 지상명령에 강제로 복종당했다는편이 더 적절한 표현일지도 모른다. 영화「지원병」、「너와 나」、「군용열차」、「망루의 결사대」등등 수치스러운 영화들이 우리 영화인들을 괴롭히던 시대다. 고달프고、배고프고 어수선한 암흑시대였다. 1941년 12월8일 하루강아지 범무서운줄 모르고 호전국 일본제국은 英·美강대국들을 상대로 드디어 포문을 열었다. 8일새벽 말레이지아 해협에서 영국군함을 공격했고、일본항공모함들은 태평양으로 남진했다. 어느일요일 아침 일본함재기들은 고요히 잠든 하와이에 폭탄을 퍼부었다. 펄·하버에 정박했던 미국항공모함들은 불시의 공격을 받고 불기둥이 솟아올랐다. 이 도둑때 같은 일본인들의 기습은 세계를 놀라게 했고, 그 처참한 2차세계대전의 도화선에 불이 붙었다.

아르헨不願 蘇군사원조

【부에노스아이레스7日UPI＝聯】아르헨티나는 포클랜드군도 분쟁과 관련소련이 외교적지원을 해올경우 이를 받아들일것이나 소련의 군사원조는 수락하지않을 것이라고 니카노르·멘데스 아르헨티나 외상이 7일 시사했다.

멘데스외상은 이날 한 라디오 인터뷰를통해 소련과 가장 훌륭한 교역관계를 유지하고있는 아르헨티나로서는 지금에와서 그같은 대소관계를 변경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강조하고 소련이 아르헨티나에 호의적인 자세를 보이는한 소련의 외교적 도움을 거절하지 않을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외교적도움과 군사적지원은 전혀 별개의문제라고 못박고 이와 관련한 정책결정에 대해서는 말할수 없다고 전했다.

한편 야마데오·프루고일리 아르헨티나 국방상도 이에앞서 아르헨티나가 서방의일원임을 강조하면서 소련의군사원조를 고려하고 있지않다고 밝힌바 있다.

한국일보
533·2361

조 규 혁
종 합 보 험
● 자동차보험
● 화재보험
● 상점보험
● 생명보험
233－6236
745－8236

한국일보 詩壇

꽃

朴明星

꽃 병에 한 아름의 장미를 꽂고
나의 짝 사랑으로 無窮과도 통하는
인사를 한다

山羊의 눈빛보다 순한 음악
어머니의 부드러운 愛撫도
사양해 버리고

다만 너의
純粹만을 近接하자

이 향연은 너와 나의 信賴일 뿐—
한 사람의 손님도 초대되지 않았고
값비싼 테이블의 盛饌도 필요없다。

不惑을 넘긴 세월에
이제야 이별없는 邂逅를 깨닫고

꽃이여!
우리만의 儀式
우리만의 깊고 숨찬 입맞춤을 가지자。

토론토 한국일보사 제정

제2회 한인민족상 모집요항

한인민족상 수상후보를 모집하오니 널리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부 문
(가) 예술상: 캐나다 한인사회에서 문학·음악·미술·연극·무용·사진등 예술 분야에서 특출한 공로자나 특기자.
(나) 학술상: 학술적 저술·발명. 발견·심포지움등 학계·교육계에서 공이 큰 인사.
(다) 봉사상: 공적, 개인적으로 한인사회에 희생적 봉사, 그 결과가 뛰어난 인물.
(라) 공로상: 한글교육·체육진흥등 기타 여러면에서 한인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 한 자. 체육특기등에 공로가 큰 인사.

2. 수 상 자 격
(가) 캐나다 거주자 (한인)
(나) 비한인(외국인)으로서 한민족의 문화선전, 한인계에 이바지한 공이 큰 인물.
(다) 개인 또는 단체

3. 추 천 방 법
전국의 각단체가 1명씩 아래 양식에 의해 해당자를 추천하되, 5월15일이내에 본사 필착토록 해주실 것. 개인적으로 추천할 경우, 추천인 5명이 필요함.

1982년 4월 일

한인민족상위원회
위원장 구 상 회

한인민족상 후보 추천서

대상자또는단체 : (연령 : 성별 :)
주소및전화번호 :
시 상 부 문 :
추 천 내 용 : (별지에 가능한한 자세히 기재, 관계증빙서류, 사진등 동봉요망)
추천인(단체) :
추천인주소·전화번호 :

보 내 실 곳 : THE KOREA TIMES TORONTO
1025 DUPONT ST. TOR. ONT. M6H 1Z7

이대환 不動産

주택, 건물, 프라자, 아파트 등이나 사업체를 사시거나 파실때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신용과 친절로 봉사하는 이대환 부동산회사에 맡겨 주십시오.

＊버라이어티 스토어
①주매상 $8,000이상 건물(1베드룸)포함 D.P. $120,000 아스킹 $210,000
②주매상 $10,000이상 아스킹 $130,000 리스 : 4+5 옵숀10년

＊도나스 샵
주매상 $9,500 렌트 $3,500 리스 : 3+5+5+5 아스킹 $310,000 다운페이 $150,000

＊햄버거 샵 (새로 지은 MALL안에 있고 일요일쉼)
현재 주매상 $2,000 OPEN한지 3주됨. 좋은 리스에 몇개월내로 주매상 $7,000가능. 다운페이 $65,000 아스킹 $169,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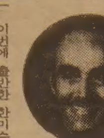
＊드라이크리닝
주매상 $4,000(Cash & Carry) 아스킹 $179,000 주매상 $2,300 (Cash & Carry)

D LEE REAL ESTATE LTD
609 BLOOR ST. W B)535－1251 R)536－4250

한미修交 1백년기념 가요 반예문神父 작사·作曲출반

가톨릭가요 대상을 제정하는등 한국의 전천가요 보답에 앞장서온벽안의반예문신부(56·본명 레이먼드·설리번)가 한미수교 1백년을기념하는 가요를 작사·작곡해 출반, 화제가 되고있다. 한미간의우의를 노래로 표현한 「백년의 노래」(The hundred year song)를 비롯해 한국과 동양을 노래한 「한국의 마돈나」(Korean madonna) 「동양의여인」(Oriental lady) 「당신의 왕국」(Your Kingdom) 등 11곡을 가수 金道卿·鄭薰姬의 노래와 반예문신부 자신의 낭송으로 담았다. 또 최근의 히트곡인 「옛시인의 노래」(작곡 李文燮)를 반예문신부가 영역, 낭송으로 수록했다.

이번에 출반한 한미수교 1백주년기념디스크는 반예문신부가 2년전부터 준비해온 것으로 한미간의 우정과 종교를 초월한 인간애가 달콤한 팝송의 멜러디에 실린 것이 특색이다.



◇반예문신부

깜찍한 새見役스타 등장
5세金美暎양 온갖 표정 척척

여자아역배우부재의 영화계에 깜찍한 연기력을 갖춘 꼬마스타가 등장, 눈길을 모으고 있다. 東亞輸出이 제작하는 영화 「애인」(감독 朴浩泰)에서 張美姬의딸로출연중인 金美暎어린이(5·계성유치원)가 화제의 아역스타. 예쁘다기보다는 깜찍한 용모의 미영어린이는 눈물을쏟아내는 연기는 물론 우울한 표정, 천진난만한 연기등을 감독의지도없이 척척해내 촬영장의 마스코트로 귀여움을 독차지하고있다고. 「애인」에 앞서 「晩秋」「세번은 짧게 세번은 길게」에서도 깜찍한 모습을 보였던 미영어린이는 「길은 멀어도 마음만은」에나오는 마리솔같은 연기자가 되는것이 꿈이라고재롱을 피웠다.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 <106>

朴婉緖 作 金光培 畵

明暗 ㊵

그런 박군이니 할머니나 어머니까지 박군아, 박군아 하면서 아끼는 건 당연했고, 아이들도 박군 오빠, 박군형님 하면서 따라서 한 집안식구같았다. 그런박군이 점심때마다집에서 가게까지 더운점심을 해서 나르는 오목이가 마음에 있어 더욱 열심히 일하면서 주인을 통해 끈질기게 구혼하고 있었다. 식구들 보기에 천생연분으로 보인 건 물론이고, 오목이 처지로는 과람한 혼처인지도 몰랐다. 아버지는 오목이를 입적까지 시켜주면서 그 혼담을 적극적으로 서둘렀고, 할머니나 어머니도 오목이가 그 혼담을 감지덕지 하지 않는걸, 처녀가 공식적으로 타는 부끄럼 이상으로 봐주지 않았다.

『박군이 어데가 어때서 그래. 그만한 신랑감이 어디 있다구? 네 나이와 처지를 생각해야지. 부모 갖춘 색시들도 신랑이 모자라 아우성인데 박군이 너한테 반했으니까 망정이지 그렇지않았으면 네 감히 쳐다도못볼신랑감이야. 잘 생기고 무던하고 돈 차실히 모아놓고, 단지 너무 외로운게 흠이지만 요샌 일부러 그런 신랑 고르는 색시집도 많다더라. 거칠거 없이 마음 편케 살라고말야. 이 철부지야 세상물정을 좀 알고 들어온 복을 박차도 박차지』

할머니의 이런 나무람은 구수했고 설득력도 있었다.

그러나 오목이는 박군한테 시집갈 마음이 없었다. 그건 그녀가 인재를 만났기 때문만은 아니었다. 그 전에도 마찬가지였다. 박군이 싫은 것보다도 근거 모르는 고아를 입적까지 시켜주면서 그 혼인을 추진시키려는 사람들의 저의가 더 싫었다. 안에서 부리던 여자와 밖에서 부리던 남자를 혼인시켜 그들보다 한등급 낮은 그들 가족에게 종속된 한인(下人) 가족을 탄생시켜 아쉬울 때 적절하게 써먹자는 속셈을 누가 모를줄 알구.

오목이의 내부엔 그녀를 친딸처럼 보살펴준 사람들의 호의를 감사하고 보답하려는 마음 대신에 이런 꼬부장한 갈고리가 있었다. 그녀는 그런 갈고리를 자존심이라고 생각했고, 스스로의 자존심을 사랑했다. 그녀의 자존심의 꿈은 그녀에게 처음으로 가정의 편안함을 누리게한 사람들에 대한 보답이 아니라 배신이었다. 박군과 결혼해서 아무리잘 살아도 미순이네와의 주종(主從) 관계를 면할수는 없으리라. 오목이는 그게 싫었다. 그는 미순이네한테도 그 밖의 누구네한테도 대등한집을 이루고싶었다. 그건 입적시켜준 은공을 배신하지 않고는 이룰수없는 소망이었다.

『언니 도대체 왜 그래?』

잠자리에 들자마자 이불을 쓰고 돌아눕는 오목이한테미순이가 따지듯이 대들었다.

流星의 賦 <378>

李炳注 作 李友範 畵

고독한 英雄 ㊳

흉계남의 전략은 귀신처럼 들어맞았다. 부천의 둔소가 위험하다는 보고를 받고, 부장 입화(部長 立花)는 장속(長束)이라고 하는 놈을 장으로 하여 백명을 파견했다. 우리의 병력이 그다지 많지 않다고 들었기 때문이다.

장속은 협곡(峽谷)에 이를 때마다 척후병을 내 이곳 저곳을 살피며 신중히 전진해 왔다. 수개의 협곡을 그렇게 하여 지나고 편편한 야산이 시작되는 곳까지 와선 한숨 돌리고 전위(前衛)로써 척후병으로 대신하도록 하고 별반 걱정하지 않고 행군을 계속했다. 편편한 야산 아무 곳에도 복병이 있을 것 같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무와 풀잎으로 위장한 이편의 군사가 보일 까닭도 없었다. 안양에 이르는 들머리에서 적들은 기치(旗幟)를 정비했다. 제법 위엄을 보이려는 작정이었다.

전위대는 이미 넓은 들로 나가버렸다. 전위대가 아무런 저항없이 그리고 아무런 저항없이 들길로 나서는 곳을 먼 빛으로 보고 장속은 더욱 만심하여 따라오는 본대를 돌아보고 후위에게 전하라며

『부천까지의 도중 복병이 없을 것 같다. 곧 들길이 나오니 안심하고 행군하라』

고 일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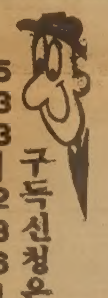
그 말이 신호가 된듯, 지금까지 풀밭으로만 알았던 왼편 산의 언덕이 갑자기 움직이더니 조총의 일제사격이 장속의 본대를 향해 날아 들었다. 장속의 군대가 응전할 여유도 없이 흉계남하의 조총 30정은 계속, 또 계속 발사되었다. 수일동안 소질있는 놈을 골라 훈련시킨 터라 30명의 총수는 가위 명사수들이었다.

조총의 사격 사이사이로 대궁(大弓) 소궁(小弓)이 으르릉했다. 이쪽 언덕 저쪽 언덕에서 교대로 쏘아 오는 바람에 적은 수원쪽으로 도망쳤다. 그뒤를 기병 20명이 추격했다. 한편 들 가운데로 나간 전위는 그들의 본대가 지리멸렬해지는 것을 망견하고 되돌아올 기색을 보이는듯 했으나 승산이 없음을 알았던지 시흥쪽을 향해 도망쳐버렸다.

이각(二刻)에 걸친 전투였다. 이전투에서 적은 수십명이 죽었다. 전위와 후위를 합쳐 살아 도망간 자가 근근 십수명 밖엔 되질 않았다니 실로 결정적인 승리라고 할 수 있었다. 조총과 화약, 대검(大劍) 등 노획한 군기만해도 대단했다.

계남은 수원으로 돌아가는 패잔병을 길게 추격하지 않고, 군사를 돌려 부천의 적둔소를 일거에 점령했다. 둔소에 있는 적병은 30명이었다. 항복하는 십수명은 살려주고, 저항하는 십수명은 도륙을 당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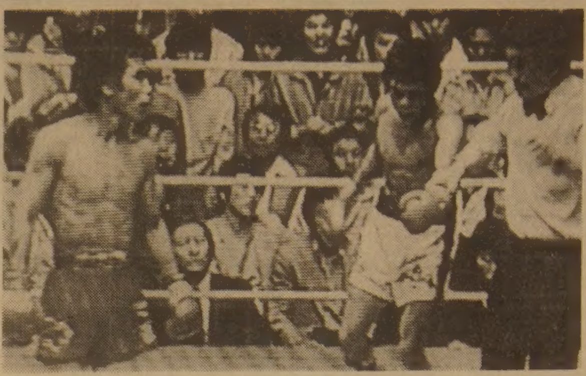
그러나 평지에 있는 십수명의 둔소를 점령하고 있어도 별반 이득이 없다고 판단한 계남은 그곳에서 노획한 무기를 묶어 포박한 적병에게 지우고 광교산으로 철수했다. 용인과 평택 사이에서 양동작전하던 조인식도 몇개의 둔소를 파괴하고 적잖은 전과를 올렸다. 남양으로 간 신붐은 입화의 부장 가운데서도 이름이 높은 장판신차(長坂信次)를 사로잡기까지 한 전과를 올렸다. 조금후에 합산해보니 그 작전에서 노획한 무기는 조총 3백, 화약 5천근, 대검 즉 일본도 2백개등이고 루구 갑옷등은 헤아릴필요도 없었다. 이로써 수원성 공략의 전초전이 시작되었다. 이무렵 흉계남은 이순신 원균의 한산대첩(閑山大捷) 소식을 들었다.



533-2361 구독신청은

종교서관
535-1920
서적판매및 대여
일반서적 다량입하
월~토 : 오전10 : 30~오후7시
714 BLOOR ST. W.

申喜燮과 來韓경기 10회KO敗
比선수 腦수술 死境
링의 恐怖
복서 健康관리에 警鐘
60년이래 국내서도 1명死亡 2명手術받아



◇10회 막판에 두차례 로프다운당한발라바㊥가 비틀거리면서 金敎根주심에 이끌려 자기코너로 가고있다. 왼쪽은 申喜燮선수. 발라바는이어 링바닥에 쓰러져 의식을 잃었다.【KBS·TV찍음】

구토한뒤 쓰러지며 意識잃어
腦지주막하出血…4시간 수술
比의 有望株、恢復 어려울듯

필리핀 프로권투선수가 경기중 머리를 크게 다쳐 뇌수술을 받았으나 생명이 위독, 선수 건강관리에 경종을 울려주고 있다.

필리핀 플라이급 2위인 앤디·발라바(26)는 7일밤 장충체육관에서벌어진 申喜燮(18·한국주니어플라이급1위)과의 경기서 10회2분35초만에 KO로패한후 의식을 잃고 코너에 쓰러져 8일새벽 국립의료원에서 뇌수술을 받았으나 중태다. 수술에 참가했던 李鎭范박사(권투위 전속의사)는「뇌지주막의 심한 출혈로 혈종(핏덩어리) 제거수술을 받았으나 부종이 심하고 전신상태가 나빠 생명이 위독하다」고 밝혔다.

발라바는 이날밤 8시30분께 申을맞아 8회까지 일진일퇴의 팽팽한 경기를 펼쳤으나 9회들어 申에게 한차례 스탠딩다운을당해 열세에 몰렸으며 마지막 10회서 두차례나 로프다운, 그로기 상태에 빠지자 金敎根주심이 경기를 중단시키고 申의KO승을 선언했다. 발라바는KO패가 선언된뒤 자기 코너로 걸어가 구토를한뒤 쓰러져 의식을 잃었다. 링닥터 朴容植씨는 중태에 빠진 발라바를 후송토록 지시, 9시30분께 국립 의료원으로 옮겼다는 것. 「급성 뇌지주 막하출혈」진단을받은 발라바는 8일 새벽1시께부터 4시간에 걸쳐 수술을 받았다.

3남매의 아버지이자 30전 24승(10KO) 3패 3무승부의 발라바는 올해들어 필리핀에서 인기가 급상승하고 있는 선수. 3개월전 필리핀서 前동양주니어 플라이급 챔피언인 朴贊希와 무승부를 기록했던 강호 시오니·카루포를 판정으로제압하고 이어 WBC前라이트플라이급 챔피언 네틀노이·보라싱(태국)을 판정으로 물리쳐 상승세를 보였다.

발라바는 맷집이 좋은 터프복서로 정평이 나있으며, 세계랭킹에 진입을 꿈꾸다가 변을 당했다. 1천5백달러의 대전료를 받기로 한 발라바는 준·사레알·베버트엘로메씨등 일행과 함께 5일밤 내한, 서울힐튼호텔에 묵었으며 경기당일 링에 오를때까지 컨디션은 좋은편이었고 8일밤 한국을 떠날예정이었다.

극동체육관소속의 申喜燮은 20전 18승(7KO) 1무 1패의 유망주로 최근들어 테크닉과 펀치력을 길러 3연속 KO승을 기록했다. 申은 당초 로드리고·사오노이(주니어플라이급 필리핀4위)와 10회전을 벌일예정이었으나 사오노이의 사정으로 발라바가 대신 서울에와 申과 싸웠으며 주최측은 지난4일 한국권투위원회(KBC)에 선수변경사실을 통보했다. 그러나 申측에서는 변경된 상대가 한체급 위일뿐 아니라 상위랭킹 선수여서 한때 대전을 포기하려다가 그대로 강행했다. 申喜燮-발라바대전은 9일밤 9시50분 KBS 제2 TV의 일요권투시간에 녹화방영된다.

우리나라 링에서 최초로 목숨을 잃은 선수는 페더급의 宋在九. 지난60년1월 서울운동장 특설링에서 흑인강타자 숍에게 KO패당한후 적십자병원서 숨을 거두었고 76년에는 文正豪선수가 뇌수술끝에 가까스로 생명을 건졌으나 선수생활을 포기하는등 국내 링에서 크고작은 사고가 속출하고있다.【金仁哲기자】

三星전자 籠球팀 창단

◇裵晋九사장이 李斗錫 단장에게 단기를 주고있다.

三星電子 남자농구팀이 8일오후 三星본관서 창단식을 갖고 새출발했다. 三星電子는 기존 三星농구팀을인수, 李斗錫전무가 단장에 선임되었고 李仁杓부장과 金仁建감독등 19명으로 구성되었다.

◇선수단명단 ▲단장 李斗錫 ▲부단장 劉秀吉 李海揆 ▲부장 李仁杓 ▲감독 金仁建 ▲선수 金亨年 張奉學 李晟源 曺東佑 安俊漢 申東燦 吳圭敏 崔光龍 林正明 鄭武浩 尹得榮 李圭成 鄭泰均 金承文

金載德 準決에
국제 J테니스

【東京7日AP=聯】도오꾜(東京)에서 열리고있는 국제주니어테니스 선수권대회 남자단식 준준결승전에서 한국의 金載德은 7일 蘇聯의 빅토르·후르다를 2-0(6-1 6-1)으로 제압하고 준결승전에 진출했다.

한국 金載德 2(6-1 6-1)0 빅토르·후르다 소련

남녀선수 8명선발
아시아 「弓道대회」

궁도협회는 8일 제1회아시아·오세아니아 궁도선수권대회(7월·日本)에 출전할 남녀대표선수 8명을 선발했다.

이번 선발서는 李龍浩(경남대) 金永霙(전남대)등 신예들이 남자대표로, 여자부에서는 신인급인 金美英(인천시청)이 포함되는등 대폭교체가 이루어졌다.

◇선발선수명단

▲남자=李龍浩(경남대) 朴益洙·金永霙(이상 전남대) 金珍善·朴浩昱(삼익악기) ▲여자=梁景順·朴英淑(이상 한국체대) 金嚴景(성모여고) 金美英(인천시청)

許永謨 8強진출
세계복싱、決勝서 南北대결예상

【원헨8일=聯】제3회세계아마복싱선수권대회에 출전한 한국의 許永謨(순천금당고)는 7일 라이트플라이급 2회전에서 루마니아의 페트레스쿠를 일방적으로 두들겨 심판전원일치의 판정승을 거두고 8강에 진출했다.

許는 3라운드 종반 번개같은 원투스트레이트를 페트레스쿠의 얼굴에 작렬시켜그로기상태로 몰고가기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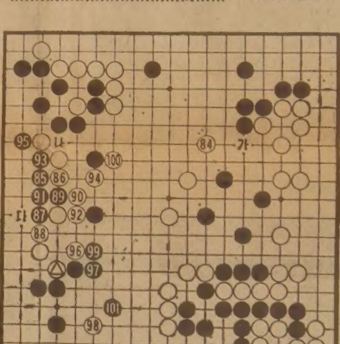
한편 북한의 고용환도 이날 라이트·플라이급 2회전에서 폴란드의 치오타를 판정으로 물리쳤다.

許와 高 두선수가 모두 준결승전을 통과할 경우 오는 15일 금메달을 놓고 남북대결을 벌이게된다.

제13기 名人戰 挑戰者決定리그

第20局 第7譜84~101 (각5시간 덤5집반)

白(7段)河燦錫〈3勝2敗〉
黑(6段)徐能旭〈2勝3敗〉



白84는 말할것도없이 중앙黑에대한 선제공세. 즉,黑이「가」의곳에 두어 연결해갈것을 예상하고 어복천지를제압하려는 작전이었다.

그러나 徐6단은 선뜻 말을들어주지 않았다. 10분,15분,그리고 21분. 갑자기 盤面을 요모조모 살펴보더니 좌변白집에,黑85로 쳐들어간것이다.

徐6단이 확인한것은 중앙黑이 제자리에서 안정할수있는 수순이었다. 白이거듭 공격해와도 독립할 자신이 있다고 본것인데 그렇다면 河7단은 외표를 찔린셈이고 게다가 꺼림칙했던 급소마저 당했다.

당초△표로 88자리에 건실하게 지키지않은 뒤탈이 급기야 발생했다며 河7단은,이에 이르러서도『그럴줄알았어』하고 좌변을 한심스레 바라보았다.

쑥밭이된 左邊白家

白86에막고 이하 黑95까지. 徐6단은 진작 얽어둔대로 거침없이 두어갔고 河7단도 예측했던 수순이어서 거의 노타임으로 진행했다.

도중 白94로「나」쪽을 이어도 黑95로젖히면 결과는 마찬가지. 또 黑95는「나」로끊는것이 이득인듯 하지만 그러면 白「다」로 젖히는선수를 당하므로 별무소득이다.

거듭말하지만 당초△표가 독선적인 수단이어서 보다시피 좌변白은 안방을 쑥밭처럼 짓밟힌것이다.

白96은 급소이며 98은 최대의곳. 黑99에대한 白100은 이렇게 젖혀야할자리다. 河7단은 다시금 침착성을 발휘하며 黑에추격당한 형세를 되찾으려고 최선을 다했다. 그런데 黑101로 세차게 씌워오자 이번에는 河7단이 응수를 주저한다.【一凡】

卓球常備軍 보강
남녀6명선발

탁구상비2군 평가전이 8일 器興훈련원서 열려 상비 1군에 보강될 남녀6명씩의 새대표를 가려냈다. 남자로서는 金泰秀(大宇), 여자부서는 尹璟美(서울信託銀)가 18승 전승으로 수위를 차지했다.

이날 평가전적에따라 남녀상위 6명씩이 상비1군으로 편입되며, 중위10명은 2군에 잔류, 하위4명은 상비군서 제외된다.

새로 편입된 6명을 포함, 남녀16명씩의 상비1군들은 오는27일 평가전을 실시, 하위6명씩이 다시 2군으로 탈락케된다.

◇종합전적

▲남자부=①金泰秀(대우)15승3패 ②李昌勳(성무)15승3패 ③安宰亨(광성공고)13승 ④崔義成(삼호)12승 ⑤金容鉉(제일합섬)11승 ⑥吉昌憲(대전동아공고)10승 ▲여자부=①尹璟美(서울신탁은)18승 ②朴末蓮(서울신탁은)14승 ③金恩喜(제일은행)13승 ④申得花(부산코카콜라)12승 ⑤魏美玉(〃)12승 ⑥鄭庚子(〃)12승

교 회 안 내

교회명	담임목사	예배시간	주소	전화
가나안교회	이정준	주일오후 1 : 30	1428 Royal York Rd (at Eglinton Av.W.)	244-2801 742-7010
갈보리교회	안병한	주일오전 7 : 30 영어설교 오후1 : 30 오후 2 : 00 금요저녁 9 : 00	3817 Lawrence Ave.E.	755-7979 431-3635
시민교회	조성관	오후예배 1 : 00 성경공부 2 : 30	148 Thornridge Dr. Thornhill	266-4918
대한교회	조남유	주일오후 2시	3819 Bloor St. W.	621-6340
순복음토론토	이필주	주일오후 2 : 00 금요기도 8 : 00	1 King St. Weston	881-7162 247-9577
동부한인장로	홍순관	주일대예배11 : 30 수요예배오후 7 : 30 영어예배 오전10 : 30	251 Christie St.	530-1142 530-1143
딕시한인장로	차주성	주일새벽 6 : 30 주일 낮 12 : 00 주일오후 2 : 00	3065 Cawthra Rd. 미시사가	279-4356 279-6388
런던제일교회	장희선	주일낮 11시 수요예배 8시 주일찬양예배7시 주일새벽기도 6시	135 Briscoe St.E.	686-6302 전화선교 439-6331
런던한인교회	신용규	주일오전11 : 00 금요기도 밤10시 주일오후 2 : 00	530 Topping Lane London	473-5257 686-0224
성도교회	김용진 정춘수	주일오후 1시30분	87 Elmhurst Dr.	745-7370
반석교회	양세주	주일오후 1 : 30 토요기도 밤7시 성경공부 2 : 40	2840 Weston Rd. at Albion	746-5010
벧엘교회	최상봉	수요저녁 7 : 00 주일오후 1 : 00	395 Old Yonge St.	496-2967 221-1382
빌라델비아장로	김경진	주일오후 1 : 30 수요오후 7 : 00	7 Gretna Ave.(Victoria Pk.& Lawrence)	281-5706
새예루살렘교회	김승환	주일오후 2시 수요새벽5 : 30 중고등영어 오후1시 금요저녁7시30분	5 Grenoble Dr. Don Mills	429-1430 429-2685
선교교회		주일오후 1 : 00	1 Greenland Rd.	444-8002
서머나감리교회	박준하 김옥희	주일영어 1 : 00 주일성경 1 : 00 주일예배 2 : 00 수요예배 7 : 30	75 Canterbury Place Willowdale, Ont.	751-3611 752-9860
대한수도원	조권사	철야기도 금 밤11시 평일기도 오후2시 토요집회 오후2시 또는 수시	100 Lawlor Ave.Tor.	698-5363
베다니성결교회	김요환	주일오후 1시 성경공부 주일 오후3시	2799 Weston Rd.	248-9709 248-1653
성산교회	계화삼	주일오후 1 : 30 수요오후 7 : 30 4 : 00	65 Mayall Ave. Downsview	977-5202
순복음카나다	조이식	주일오후 2 : 00 금요오후 8 : 00	1030, Albion Rd.	745-3884 743-4813
에덴침례교회	정태진	주일오후 2 : 00 금요일 오후6시 성경공부	1272 Weston Rd.	242-4964 665-2866
영락교회	김재광	주일오후 1 : 30 금요저녁10 : 30 수요저녁 7 : 30	126 O'connor Dr. at Pape Ave.	423-9880 423-8400 (복음다이얼)
오순절장로교회	장세택	주일오전11 : 00 주일오후 4 : 00 금요오후 8 : 00	754 Indian Rd.	762-1495
임마누엘교회		일요오후 2 : 30	63 Dunblaine	488-4141
요한웨슬레감리교회	여용순	주일오후 1 : 30 금요예배 7 : 30	2385 Warden Ave.	444-3343 497-7122
제일장로교회	김용출	주일오후 1 : 30 금요오후 7 : 30	963 Pharmacy Ave.	755-0766 755-1528
제7일안식일	박형종	금요오후 7 : 30 토요오전 9 : 30 11 : 00	255 Finch Ave. W.	630-4284
한인중앙교회	정관일	주일오후 1 : 00 금요오후 9 : 00 성경공부 2 : 20	502 Bathurst	274-5305 전화설교
천주교회	고종욱	주일오후 1 : 00 토요오후 5 : 30	83 Power St.Tor.	863-0415
침례교회	홍신웅	주일오후 2 : 00 금요오후 8 : 00	720 Ossington Ave.	531-7604
충현교회	박경남	주일오후 2 : 00 금요집회 밤8시 주일오후 4 : 30	240 Manor Rd.	281-7772
키치너워터루한인교회		주일오후 1 : 30	54 Queen St. N. Kitchener	(519) 579-1819
펜티코스탈교회	심상대	주일오후 1 : 00 주일오후 2 : 00 (영어예배) (대예배)	300 Queen's Dr.Tor.	223-1914
한인장로교회	박희민	주일오전11 : 00, 수요오후 7 : 30 T. V. 예배 8 : 30~9 : 00A. M. CH. 79	1183 Davenport Rd.	535-6864 532-2121
해밀턴연합	김낙중	성경공부 2 : 30 주일학교 3 : 00 예배 3 : 00	1570 Main W. Hamilton	627-4329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LISBON AUTO COLLISION INC.
●토잉써비스
●완전한 차체수리
●무료견적
RUST PROOFING
B)533-8507 533-8508
이영두, 이건하

최고의 발행부수와 최대의 광고효과를 자랑하는

한국안내광고

한국인의 도매상
한 인
연합상사
25-27 Rangemore Rd.
☎ : 251-6578

시설및 수리

"집수리 · 신건축"
건축 목공 각종 가게시설및 진열장
카운터 제작, 페인팅 타일
전화 : 669-5784 Mr. 심

"가게및 집수리 일체"
시설및 수리 (상하수도, 전기제품, 페인팅)
성심 성의껏 봉사해드리겠읍니다.
전화 : 425-8585 Mr. 김

KIM ELECTRIC LTD.
MET. LIC. E1018 전기시설 · 보수 · 경보장치 설치
FIRE ALARM 전화: 438-3795 김 영 호

KIMBO ELECTRIC CO. MET. LICENSE E-725
전기시설 · 보수 · 가게신설 · 용량증설등 전기일 일절
전화: (B) 245-5544 (PAGING) 2790, (R) 255-2161 김 부 원

전기시설 · 보수
CANCO ELECTRIC CO. 각종 냉동기 에어콘
전화: 270-3118 오 현 구

FINE WOODWORK 목공소 상점시설및 주택개조
879 Westport Cr. Unit 3, Mississauga, Ont. 싸우나 설치, 진열장
전화: 676-1173, 769-9468 찬장등 가구제작

T. V. 출장 수리
전화: 431-0102 미스타 박

식 당

CHOI'S RESTAURANT
메뉴: 초밥, 튀김덮밥, 모밀국수, 갈비, 불고기,
덴뿌라, 스끼야끼, 기타 ◉일요일 휴업
시간: 주중:낮12-밤12시까지, 목금: 낮12-밤1시까지
토: 낮4시30분-밤11시반
주소: 2432 Eglinton Av. E. Scarboro (at Kennedy)
전화: 759-8512 최 영 호

아 리 랑 식 당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영업시간 : 월~일요일까지=낮12시~새벽1시까지
716 BLOOR ST. W. TORONTO 전화: 532-2727

오리엔탈팰레스·뉴서울식당
529 BLOOR ST. W. TOR.
예약 : 533-3545~6

코 리 아 하 우 스
666 BLOOR ST. W.
전화: 536-8666

거 구 장
5 BETHRIDGE RD. 전화: 742-1618

한 국 관 628 BLOOR ST. W. 전화: 536-0290, 531-0277
냉면, 곰탕, 갈비및 중화요리 전문,
OPEN 11 : 00AM~1 : 00AM 대소연 200석 완비

서 울 하 우 스
615 BLOOR ST. W.
전화: 532-0602

Rose Garden (중국집)각종 파티, 회의실 마련
일류요리사, 홍콩식 중국요리 취급
전화 : 656-0456, 654-6609 유 창균

식 품 점

한 밭 식 품
◉ 미시사가지역 교민들께 편리.
◉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 일요일은 오후 4시~8시까지 OPEN
466 SOUTH SERVICE RD. MISSI.
전화: 274-5401

동 양 식 품
일주일 내내 영업, 일요일도 정상영업 합니다.
(화요일만 오후1시~10시까지) 많은 식품을 준비하고 있아오니 계속 이용해 주십시요. *배달도 합니다.
1662 JANE ST. WESTON ONT. 전화: 248-5131

제 일 식 품(구 단풍식품)
7 Days Open(오전10시~오후10시까지)
배달합니다
뒤에 파킹 LOT 마련.
전화: 532-1054 (아리랑식당 옆)

삼 복 식 품 주 7일 영업, 배달합니다.
2437 FINCH AVE. W. WESTON
전화: 743-8270

서 울 식 품 ◉ 친절한 써비스, ◉ 저렴한 가격
367 PITFIELD RD.
전화: 291-8317

고 려 식 품 680 Bloor St. W. Tor.
주 7일영업(오전10시~오후11시까지)
배달가능, 각종서적및 월간잡지 전화:531-2242

악 기 점

피아노 수리, 조율, 재생, 운반,
중고 피아노 팝니다.
PIANO. TECHNICIAN
전화 : 636-1430(R), 783-6871(B)
주소 : 1178 EGLINTON AVE. W. 이 상 철

SOO PIANO SERVICE (조율, 수리)
Simson's Mr. Music의 Representative
전화 : 222-4662 김 수 웅

양 장 점

샘 터 의 상 실
숙녀복 · 파티드레스 · 웨딩드레스 · 단체주문환영
606 Bloor St. W. 전화 : 535-4441 디자이너 MR. 김

MIRAGE BOUTIQUE(구 코스모스숙녀복집)
각종 고급 숙녀복 취급. 704 Bloor St.W.
오전 11시~6시30분 전화 : 530-1870

액 자

PICTURE FRAME WAREHOUSE(각종액자)
32A REXDALE BLVD. REXDALE
전화 : 746-2120 조 혜 숙

에어콘·히팅·냉장고

PALMER'S
에어콘, 전기, 개스히팅, 워킹쿨러, 아이스크림후리저
NEW OPEN STORE SPECIAL SERVICE
시설 · 판매 · 수리
전화 : 532-2880, 2889(B) 493-9945(R) 김 봉 균

에어콘·냉동·전기·히팅·세탁기
시설 · 판매 · 수리
정확한 진단 · 예방및 각종 고장 정비
정확한 정비 · 캐나다 최상급 자격증 소지
— 24 HOUR SERVICE —
전화 : 366-5655, 531-5440 이 황 영

CENTURY
(냉동기 시설및 수리)
전화 : 221-5441 Mr. Lee

KIM 냉장고 · 에어콘
시설 · 수리 · 판매
전화 : 749-3178 김 진 환

여 행 사

서 울 여 행 사
631A BLOOR ST. W.
전화 : 535-6004,
: 535-8801 최 동 주

신 세 계 여 행 사
712 BLOOR ST. W.
전화 : 536-2155 김 창 범

제 일 여 행 사
649A BLOOR ST. W.
(김종조 종합보험 옆)
전화 : 535-2377 유 지 원, 신 용 목

북 미 여 행 사
376 QUEEN ST. E.
전화 : 368-9018,
: 366-0960(B) 임 태 호

화 랑

KIM'S ART GALLERY
각종 유화, 동양화 도매, 각종 Picture Frame
1286 Weston Rd. 전화 : 243-0233

운전학교

AGINCOURT DRIVING SCHOOL
스카브로 지역은 집에서 데려가고 집에까지 데려다 줍니다. 16년간의 경험으로서 특히 신경예민하신 분들과 연세 많으신분들께 성심 성의껏 지도해드립니다. 한번 수업에 Parking에 관한 전반적인 것을 배우실수 있으며 전문가로부터 운전에 관한 모든 필요한 지식을 배우시게 됩니다.
Call Ask Vlado, 291-8304 (오후 4:00-밤 11:00)

오행근운전학교
전화 : 423-3035

이삿짐및 운송

나 라 운 수
각종 운반및 이사짐, 피아노, 쿨러
전화 : 630-6602

인 벤 토 리

INVENTORY — 인벤토리 —
1) STORE 인수, 인계 INVENTORY
2) STORE 정기조사 INVENTORY
3) STORE 납세대비
*주야 INVENTORY
TORONTO RETAILERS INVENTORY CO.
전화: 259-5822,255-8301(B) 252-2963(R) Mr. 오

INVENTORY — 인벤토리 —
주야불문 (공휴일 무관)
전화 : 532-7741(B), 536-6250(R) 호 세 환

인 쇄

칠성인쇄소, 칠성광고 대표 : 이 인 용
1559A Eglinton W. TOR. ONT. M6E 2G9
전화 : (B) 789-7351, 789-7352

스피디인쇄소
619 BLOOR ST. W.
전화 : 535-3520 곽 호 중

LEE'S 프린팅
최고의 품질, 저렴한 가격
2157A WESTON RD. WESTON 전화 : 244-2301

크로바인쇄소
3351 Lakeshore Blvd. W.
전화 : 251-9587(B) 252-7491(R) 위 정 남

광고문의 533-2361

비들기사진식자인쇄소
87 Apache Trail Willowdale, Ont.
전화 : 493-8894 윤 종 대

자동차수리

MASTER AUTO BODY
사고차량 24시간 토잉, 사고시 보험관계 처리
수리중 차대여, 페인팅 (Oven Bake Finish)
교포특별대우, 95 Portland St. Etobicoke.
전화: 255-2111(B), 828-5001(R) 전 기 덕

ANCHOR AUTO BODY
▲완전한 차체수리 ▲무료견적 ▲두꺼운 페인팅
▲토잉 써비스 ▲Rust Proofing
846 RICHMOND ST. W. TOR.
전화: (B) 862-1433, (R) 493-8792 송 창 섭

ALLEN AUTO SERVICE
▲GENERAL AUTO SERVICE ▲TUNE-UP
▲BRAKE JOB ▲TIRE ▲TOWING SERVICE
▲ENGINE OVERHAUL ▲ELECTRIC PROBLEM
▲AUTOMATIC TRANSMISSION ▲OIL CHANGE
주소: 521 KEELE ST. TOR. 전화: 762-3247 정 용 태

O. K. AUTO BODY
자동차 사고 전문
138 SIXTEENTH ST. (New Toronto,)
전화: (B) 251-9889, (R) 242-4551 김 희 삼

자동차 출장수리 (오전및 주말)
INTERPROVINCIAL LICENCE MECHANIC
전화: 749-9749 Mr. 박

CENTRAL AUTO SERVICE 길 창 세
▲Tune up ▲Safty Inspection Certify ▲Professional Brake Service.
481 Dupont St. 532-3946

ROGERS GARAGE (자동차 수리일체)
20 Rogers Rd. 변 달 원
전화: 651-9324(B), 226-5430(R)

L & K AUTO COLLISION
주소 : 346 MUNSTER AVE.(BLOOR & 키플링)
전화 : B) 231-6951, R) 742-5406 오 세 호

CITY WIDE RADIATOR SERVICE 김 용 환
라지에타 — 개스탱크·히터·워터펌프 수리
전화 : 245-1978(B), 248-6032(R)

FIRST AUTO SERVICE
1521 QUEEN ST. W. 최 이 락, 김 한 호
전화: (B) 532-0200, (R) 533-2157

자동차 매매

GRANT BROWN
1575 Weston Rd.
전화 : 247-7161 이 한 구

MARVIN STARR
3132 Eglinton Av. E. Scarboro.
전화 : 264-2311 조 의 문

매매 부동산

복 덕 방 ROYAL TRUST CO.(로얄 트러스트)
곽 석 용 전화 : (B) 752-3111, (R) 298-2546

D.F.McALLISTER R.E.LTD. 김 시 성
투자전문(IC & I)
전화 : (B) 497-0600

이 대 환 부 동 산
전화 : 535-1251

이 훈 모 부 동 산
전화 : 225-1204

황 용 현 부 동 산
(주택매매, 사업체 일체)
전화 : (B) 449-8644~5, (R) 286-1548

ROYAL TRUST (유 복 영)
전화 : 762-8255 West 지역

CANADA PERMANENT (황 순 일)
전화 : 481-3443

A.E. LEPAGE (우 덕 이)
전화 : 741-9170

SINCERE REALTY INC. (채 준성: David Chae)
주택 사업체등 모든 부동산 취급.
전화 : (R)633-7892, (B)497-8900

장 의 사

장 의 사 (R.S.Kane Funeral Directors)
모든 장의관계 일체 취급
4812 Yonge St.E.(세파드 써브웨이) ☎ : 221-1159

카펫 · 카텐

싸다고 소문난 가나안 카텐·카페트·브라인드
2338 LAKESHORE BLVD. W. WINDOW SHADE
전화 : (B)252-4857 (R)252-6602 유 원 덕

카페트 크리닝: 카페트·소파·체어·자동차시트
최신 스팀샴푸 크리닝
전화 : 439-6277 Mr. 박

태 권 도

손명수 태권 · 합기도장 사범 : 손명수
2188 BLOOR ST. W. (At Runnymede 써브웨이)
전화 : 763-1155

임송학 태권도장
1963 WESTON RD. (1층)
전화 : 247-7577 (웨스톤 × 로렌스) 로브로앞

영정태권도장
1065 St. Clair Ave. W.
전화 : 652-0000 사범 : 정 영 수

완인태권도 完人跆拳道
교포 할인우대
이경태, 이현우 사범 직접책임지도
중앙도장 : 2281 YONGE ST. 전화 : 483-4002
동부도장 : 1865 LAWRENCE AVE. E. 전화: 759-2500

T V

아카데미 TV & STEREO CO.
SANSUI, BRAUN, ZENITH, TELEFUNKEN 등
◉ 특별대매출, ◉ 월부판매 알선
★ 동부 255 MORNINGSIDE AV. 282-2820
★ 서부 Finch West Mall(Finch & Weston) 745-5555

STEREO KING 전화 : 766-4770
◉ 고급 라디오, 전축 전문센타
◉ 전축 스테레오 수리전문
◉ 비데오 취급
2989 DUNDAS ST. W. (킬 × 던다스)

페인트 벽지(월페이퍼)

★봄맞이 집단장을 하시지 않으시렵니까?
★저렴한 가격과 우수한기술로써 성심껏 모시겠읍니다
★전화상담도 환영합니다.전화:745-6792(Mr.우)

다년간의 경험으로 성심 성의껏 봉사해 드리겠읍니다.
전화문의도 받읍니다.
전화 : 746-6962 (Mr. Lee) 페인트·월페이퍼

학 교

씨알한국인학교 (교장 유희자)
전화 : 960-0074

Y어린이학교 (김창열)
전화 : 536-1166

한 방 원

동양한약상사
20여년의 경험과 연구로 귀하의 문의에 응하겠읍니다.
정확한 진매, 한방처방조제및 치료상담, 녹용, 웅담, 인삼, 우황청심환, 전자침, 지압치료, 자외선치료, 적외선치료
온타리오 면허소유 함병섭 M.C.I.C. R.M.
◉Downtown Office : (416)537-6685 8am~6 : 30pm
621 Bloor St. W. 한국관 맞은편 Toronto
◉Willowdale Office : (416)222-9485 7pm~10pm
244 Finch Ave. E. (Yonge St.에서 Bayview근처)
VISA 또는 MASTER CHARGE 환영

안강용한약건재상
중국한의사 4명으로 정확한 진찰, 신속한 효과
보약제와 신경통약이 다량 수입되었읍니다.
교민들에게 특별 염가 제공코져 합니다.
전화문의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6일영업 아침10시~저녁8시 (수요일 휴업)
차이나타운내 (465 DUNDAS W.)
전화 : 596-8407, 596-7373 최 호 권

하르빈한약상사
20년간 한의사 경험(중국의사 자격증 소유)
20년간 하르빈한의대학교수
정확한 진단과 처방
한약으로 암환자를 치료
중국본토에서 한약 직수입
(사향, 경명, 주사, 우황, 진주, 웅담, 인삼, 녹용등)
643A BLOOR ST. W. (신용조합옆)
전화 : (B)536-6854, (R)531-7505 서 춘봉

보 광 한 약 방
30여년의 (부산) 임상경험을 토대로 교민여러분의 건강관리에 미력하나마 이바지하기 위해 친근한 상담역이 되고자 하오니 한약및 침구에 대한 격의 없는 상담을 바랍니다.
주소 : 92 Brantwood Drive (스카보로 제너랄병원근처)
전화 : 439-6717 김 남 집

서 울 한 의 원
한의사 김 장 석
전화 : 1-212-762-4694 (New York, U. S. A.)

침뜸, 디스크, 좌골신경통, 관절염 (내장질환) 박 영 숙
진료시간 : 매일10AM~8PM 전화 : 922-7090
700 ONTARIO ST. #517(St. Jamestown)

아세아한약상사
645 Bloor St. W.
전화 : 530-0522 531-4165(R)

회계사무소

YOUNG C. LEE M.B.A.R.I.A. "METRO WIDE"
ACCOUNTING & TAX SERVICES
8년간의 캐나다 회계및 세금조정, 현 CA Office근무중
BOOKKEEPING & ACCOUNTING
MANAGEMENT CONSULTING, INCOME TAX PREPARATION
전화 : 239-6802 이 영 철

김인규회계사무소 ACCOUNTING & TAX
501 Yonge St. #207, Toronto
전화 : 960-5736(B), 844-0178(R)

정필주회계사무소
전 C. A. FIRM ACCOUNTANT
4750 Jane St. Suite No. 608 전화 : 661-1819

최태권종합회계사무소 (ACCOUNTING & TAX)
개인세무및 보고서작성, 사업회계및 장부정리
637 A BLOOR W. 전화 : 533-7573(B)

김명숙 회계사무소
484 BLOOR ST. W. TOR.
전화: 537-3171(B), 669-2710(R)

* 한국일보 안내광고 *

아세아 한약방
특수한약처방및 침술.
물리치료, 부인병
신경통 각종보약.
645 BLOOR ST. W.
☎ : 530-0522(B)
531-4165(R)

최고의 발행부수와 최대의 광고효과를 자랑하는

한국안내광고

BLACK SEA
Fish
Wholesale Ltd.
각종 생선 소매·도매함
16 Osler St.
☎ : 762-7255, 7256
762-2700

구 인

학생구함
피아노 레슨, Theory
경력 : A.R.C.T, U Of T B.M. Performance
전화 : 531-4579 신 수명(오후 5시이후 연락바람)

유경험자 토요일,일요일 Variety Store Helper 구함.
영 / 에그린톤 부근.(낮12부터 밤10까지)
전화: 481-2172

바이올린 교습생 모집
전화: 535-0708 박 명 진

미치 일본 식당에서 일하실 요리사와
혹은 견습요리사 구함.
459 Church St. Tor.
전화 : 924-7501(오후12 : 30~오후6 : 00)

양복점 기술자 구함
남자 테일러, 여자재단사
중국인이 경영하는 고급양복점으로 작업환경이
좋고 고급기술을 습득하기에 좋은곳.
희망자는 직접 내방하기 바람.
737 Broadview Ave. Toronto 부로드뷰와댄포스남쪽

아이스크림 스토아에서 일할 학생구함.
(미시사가지역 여학생환영) 전화 : 277-8772

Rose Garden 웨이추레스 급히 구함
경험자, 영어가능자 원함.
전화 : 654-6609 12시 이후 연락바람

Full Time or Part Time 캐셔구함.
동부지역 전화: 422-3121

입주하셔서 집안일 도와주시고 노인네(여자분) 시중들어
주실분 구함.
전화: 742-8537(5시이후 연락바람.) Mrs. Kim

남·녀 관계없이 Milk Store에서
일하실 Helper구함
전화 : 691-3666

지렁이 (Weston & Finch 지역)
전화 : 741-2557

입주하셔서 아기 둘 보아주실분 구함
전화 : 929-0882

경험있는 여자자켓 만드실 Full Time 재봉사 구함
(주급 : $220부터~)
전화 : 368-2819 (Mr. Wong)

지렁이 잡으실분, 당일지불(Cash)
친절하고 편안한 서비스로 우대함. 경험자 환영
전화 : 537-6345(롬), 531-0773(김)

귀 사업체는—.
어디에서 무엇하는 곳입니까?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효과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 : 533-2361

구 혼

결혼상담실 (한국기원 내) 상담자 : 최규찬 김운서
653A BLOOR ST. W. TORONTO.
전화 : 533-0168 매일오후 1시~10시

매매및 양도

"가 구" 직접 공장에서 만들어 파는 까닭에 여러모로
고객에게 도움을 드립니다.
1) 3 pcs. Wall Unit. $199
2) 7개의 설합달린 책상 $65
3) 거울달린 화장대 $79
4) Bed room set(9 pcs) with mattress $399
5) 5 pcs. Kitchen Set (식탁 + 4개의 의자) $89
6) 쇼파 4 pcs. $399 etc.
937 QUEEN ST. W.
전화 : 364-0984 REMA FURNITURE

Building For Sale
토론토 서부지역 매우좋은 위치의 Corner building
10 Apartments, 7 Stores
Yearly Income : $79,000
Yearly Expense : $23,500
First Mortgage : 13%, 1985년까지
아스킹 프라이스 : $439,000
Call Spiros 762-9134

Variety & Hardware Store 매매
주매상: $9000이상 권리금및 Stock은 All Cash
요구, No Mortgage! 리스 4년+옵션 5년
361 Carrville Road,Thornhill Ont. (Hill Crest Mall옆)
꼭히 관심있으신분 내방바람.

Milk Store 매매
주매상 : $4,500, 리스 : 5년+옵션5년
394 Browns Line, Etobicoke, Mr. Kim

모든 면허가 나와있는 레스토랑(Tavern)
급매. 중국음식과 한국음식을 겸해서 할수
있는 좋은 장소임. 매우 좋은조건의 Rent
와 Long Lease, 좌석 : 156석
위치 : 21 Vaughan Rd.
Ask Paul or Ivan 전화 : 656-9503

성능좋고 속도빠른 사진 식자기
(SAKEN SPICA - K)를 급매합니다.
문의처 : 한국일보사
전화 : 533-2364 Mrs. 김

최고의 거주지역에 위치한 Corner Variety Store!
(독립2층빌딩및 비즈네스)(Detached Drick Two Story Building)
아스킹: $239,000 주매상: $4,500이상
다운페이: ¼ 아스킹 프라이스
Carol Chao 596-8681
Gulios Aloi Real Estate

좋은위치에 3 Bed Room 포함한 토론토
북쪽에 위치한 조그만 마을의 수입좋은 가게 매매
Royal Trust Real Estate
전화 : 773-6101, Bud Eige

큰 규모의 그로서리 스토아 매매
2,400 sq. ft. 주매상 : $7,500
아스킹 : 7만불+스탁
전화 : 769-9704(5시이후)

건물및 상점(그로서리 & 버라이어티) 급매
현주매상 : $8,500~$8,800 아스킹 : $229,500
로타리오 머신 (별도)
237 ParkLawn Rd.(관심있으신분 내방바람)

꽃가게 급매
전화 : 624-7597

80년형 Pontiac Parrisienne Safari Wagon.
거의모든 Option 들어있음 55,000Km, $6,900
전화 : 439-4620

2 Ton(2000 Kg) 적재할수 있는 Condition좋은
Trailer 매매 가격 : $1,200
전화 : 532-0602 (3시에서—6시사이에 연락바람)

성업중인 쥬니어 데파트먼트 스토아 급매
Open Hour : 월-토 (9:00a.m-9:00p.m) 꼭히 관심있는분의
연락바람. 전화 : 1-576-7021, 1-576-9899(밤9시이후)

버라이어티 스토아 급매
주매상 : $4,200-4,500, 아스킹 : $29,000+스탁
1000 Pape Ave.(꼭히 관심있으신분 내방바람)

경쟁없는 그로서리 & 버라이어티 스토아(Tuck
Shop)주매상 : $3000이상 (꼭히 관심있으신분
내방바람. 위치 : 114 Forsythe St. (Oakville)

MITA COPIER 500D (Very Good Codition)
사무실용으로 적합.
전화 : 533-2364 Mrs. 김

그로서리 기프트 스토아 매매
주매상 : $6,000 위치는 동쪽
연락처 : 281-2730 강(11시~5시)

성업중인 그로서리 및 버라이어티 딸린
전물 급매
전화 : 532-8260

써브-마린 가게 급매 아주 좋은 조건임.(Barrie중심지역)
전화 : 1-705-722-7422 Mr. Eloi 낮12시-오후10까지연락
낮12시~오후10시까지 연락바람.

BIBLE STORY (전 10권) Set $240.-
전화 : 769-4366 (오후 6시이후)

Using Language Laboratory, You can learn
English within 3months (집에서)
전화 : 533-7324, 533-4966

Varity, Fruit & Vegetable Stores For Sale
(꼭히 영어로 문의하시기 바람)
Call Peter Chung 636-1504

Variety & Grocery Store 매매
주매상: $4,000이상, Rent: $500
전화: 463-4181

버라이어티 스토아 매매, 주매상 : $3,000
4 비데오 머신, 라이센스와 로타리오 (로렌스×브림리)
전화 : 261-4469(Joe) 오전7시30분~오후6시 사이에 연락바람.

2베드·룸 딸린 버라이어티 스토아 가정사정으로 급매.
리스 : 4년, 옵션 : 5년, 렌트 : $550.
전화 : 266-4866 (월~토)

Kingston Rd. 와 Victoria Park Corner에
위치한 버라이어티 스토아 급매
전화 : 698-0844 언제든지 연락요망

식당과(Snack)아이스크림 & 그로서리를 겸한 가게 급매
499 David Dr. (New Market, Ont.)
꼭히 관심있으신분 내방바람

Mr. Donuts Franchise
Yonge Street North Thornhill
1500 Sq. Feet
Seats 30,Open 24 hours
Excellent Lease, Call Mr. Pridham 883-3095
The Gormley Group Real Estate

BUSINESS BARGAINS
드라이 크리닝 장비 싸게 팝니다.
4 Drycleaning Plants asking $29,000,
$49,000, $69,000, $159,000

2 Variety Stores asking $26,900, $45,000

2 Donuts Shops askig $129,000, $169,000

Call Nick Marali
Selective Realty, Realtor
Days : 751-6850
Evenings: 439-7796

당신기업은 불황을 모르는
사업체로 키우고 싶지 않읍니까?
안내광고(CLASSIFIED)는 저렴한 비용으로
놀라운 광고효과를 드립니다.
전화 : (416)533-2361~4

하우스 렌트

클링톤하우스 693 Bloor St. W.
일,주,월, 일정한 기간에 상관없이 Rent하실분.
Christie Subway에서 100m거리 아리랑식당앞.
꼭히 관심있으신분 내방바람.

3개의 방이있는 사무실 렌트 합니다.
(Professional Suit) 회계 또는 변호사사무실로 적합.
815 Bloor St. W. 2nd Fl.로 직접 내방 원합니다.

즉시 입주 가능한 교통이 편리하고 1년반된 최신식 시설
의 미장원 Rent($500/Men.) (St.Clair × Weston)
전화 : 763-3289, 444-1322

시설완비된 Semi Detached, 3 Bed Room
Rent: $650/mon. (케네디 & 엘스미어지역)
전화: 225-1204

한국일보 광고문의
광고국직통전화 :
☎ : 533-2361

가 구 점

ECOSYS FURNITURE
2300 YONGE ST.
전화 : 486-0397 김 만 구

LEON'S 가구·카페트·전자제품
20 McLevin Ave(세파드×마캄)
전화 : (B) 291-3818, (R) 749-9687, 746-0981 조석민

간 판

각종 고급간판 제작및 수리 (CITYLITE SIGNS CO.)
777 WARDEN AVE.
전화 : 751-9236, 757-2106 홍 진 표

SIGN & GRAPHIC
건축설계상담시공
바우종합광고회사 637A BLOOR ST. W.
전화 : 535-0647, 465-1722 송 관 현

꽃 집

다우스 꽃집 (DAWES FLORIST)
◉각종 어랜지먼트 & 각종플랜트 ◉각처 주문배달함
464 DAWES RD. (VICTORIA PK. & ST. CLAIR)
TORONTO, ONT. M4B 2E9
전화: 751-5851(B) 757-6711(R) 이 동 환

제인·파크 꽃집 (JANE PARK PLAZA안)
각종파티, 생일, 결혼, 장례꽃주문·배달함.
875 JANE ST. TOR. 전화: B) 769-0609 R) 242-5194(여정웅)

정 손 꽃 집 MARKLANDWOOD PLAZA 안
4335 BLOOR ST. W. ETOBICOKE
전화: 622-8516(B), 279-3719(R) 허소피아

도 서 판 매

World Book(백과사전)
☎ : 533-2364(Mrs. 김)

메리야스

온가족이 애용하는 고급내의 쌍방울 메리야스
602 BLOOR ST. W.
전화 : 532-5394(B), 742-0737(R)

쌍방울 메리야스
Weston Mall (웨스톤 × 휜치)
전화 : 746-3458

미 용

ANNIE'S BEAUTY CARE CENTER
Skin Care, Ear Piercing, Fashion Make up.
각종 미용상담에 관해 전화문의도 받읍니다.
6093 Yonge St.(영 × 휜치)
전화 : 223-7884 Mrs. Lee

킴스미용실
(코리아하우스 뒤)
전화 : 532-7094(B) 438-0628 (R) Mrs.Oh

소니아미용실 신부화장, 남녀커트, 파마전문
2085 Lawrence Ave. E. Jovan Plaza unit 3 (우체국옆)
전화 : (B)759-8854, (R)755-2759 미세스 허

로마노미용실 김 조 자
330 Dixon Rd. W. (Islington 과 Kippling 사이)
전화 : 248-2957(B) 247-6875(R)

스타미용실 미세스 김
남녀 커트, 파마전문, 9am-8pm, 일, 월요일 휴업
2437 Finch Ave. W. (B)741-4410, (R)742-0827

마야미용실 631 Bloor St. W.
한국관 앞, 서울여행사 이층
전화 : 588-1480(B), 243-8026(R)

백 화 점

미 도 파
454 BLOOR ST. W. 전화 : 536-1692

번역및통역

번역, 통역 (통역은 월요일만 합니다.)
CHARLES YU (유좌서) 10 SUNRISE AVE. UNIT 203.
M4A 2R1 전화 : 759-9505 (5시 이후)

보 험

CANADA LIFE (강학수)
전화 : 868-0922

SUN LIFE (김신명)
전화 : 922-3111

김종조 종합보험
전화 : 535-7200

임페리알 LIFE (김홍량)
전화 : 961-3774

SUN LIFE (백용빈)
전화 : 497-3800

조규혁 종합보험
전화 : 233-6236

SUN LIFE (윤호영)
전화 : 922-3111

사무용구및 계산기

SKY WAY Business Machines
215 Carlingview Dr. Unit 109 Rexdale
전화 : 675-1295 김 인환

사 진

KIM'S CAMERA 여권사진 즉석촬영
각종카메라 · 전자제품 판매및 수리, 각종 증명사진
619 BLOOR ST. W. 전화 : 534-1085 김 춘 탁

새 한 칼 라 현 상 소 전화 : 535-7772
결혼 · 돌사진 · 각종 증명사진 · 회갑 · 출장환영
현상 인화 확대, 비데오 촬영 630 BLOOR ST. W. TOR.

무 지 개 칼 라
COMMERCIAL · ART PHOTOS · WEDDINGS VIDEO 촬영
36 Neapolitan dr. 전화 : 438-4435 오후3시30분~오후9시30분

선물 센타

거 북 이
617 BLOOR ST. W. 전화 : 535-2143

빅 · 세 븐
678 BLOOR ST. W. 전화 : 533-7966

MISTER O FOR MEN
전화 : 964-2606, 869-0589, 275-2187

소 독

ZAP SUREKILLER 전화: 368-9018, 366-0960
바퀴벌레 개미등 각종벌레 100% 효과
한국식품점 또는 온타리오 전역 공급, 주문배수

스 포 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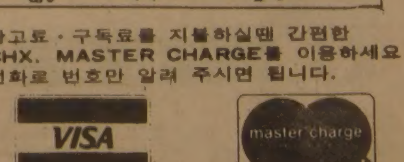
브랜든운동구점 (종합운동구점)
각종단체 유니폼및 트로피, 골프, 스키장비
일체 취급
337 BLOOR ST. W. 전화 : 598-3732 이건영

MUNAMI TROPHY & SPORT
각종트로피및 상패 50% OFF
GOLF PRO SHOP
영업시간 : 월~금: 10a.m.~8p.m. 토: 10a.m.~6p.m.
880 Ellesmere Rd. Scarboro. 전화 : 298-3584

시계·귀금속 수리

M & J JEWELLERY REPAIR 시계및 귀금속 수리
1530 Albion Rd. Rexdale (Kipling × Albion)
전화 : 742-1205(B), 745-1632(R) Mr. 마

광고문의
☎ : 533-2361



광고료 · 구독료를 지불하실땐 간편한
CHX. MASTER CHARGE를 이용하세요
전화로 번호만 알려 주시면 됩니다.

VISA master charge